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WHAT THE
WORLD
IS COMING TO

척 스미스 지음

김동백 옮김

머 리 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멀리하라. 계시록은 봉한 책이므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시도했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많은 이상한 일들을 저질렀었다. 그러나 이 책이 쓰여진 의도는 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이 계시록 강해는 지난 몇 년 동안 연구한 개념과 결론으로, 누구든지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연구한 것에 대해 과연 그러한가 각자가 성경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기를 바랄 뿐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행 17:1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살전 5:21)

Calvary Chapel

척 스미스

경고의 말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은 흰 수염이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긴 도복을 입고 가슴과 등에 광고판을 달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들의 광고판 앞면에는 “회개하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쓰여 있다. 우리는 그들을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치거나 그들의 그러한 생각이나 관념을 비웃는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말을 광신적인 늙은이나 소위 예언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나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 분야에서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다. 이 사람들은 지구의 환경상태와 생태학을 공부한 사람들로서, 하나같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14년 혹은 40년 가량밖에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때가 되면 모든 천연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자연의 균형을 주의깊게 연구하는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태학자들의 이런 말을 믿어야 하는가? 인간은 정말 자연의 균형을 파괴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동물을 멸종하고, 에너지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새들은 달걀 껍질에 침전된 살충제(DDT) 때문에 알을 부화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지구의 오존층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가?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를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들만이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은 만일 전면적인 핵전쟁을 하게 되면, 인류는 지구상에서 멸종되어 그 문명도 끝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무기와 그것을 운반하는 무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나라들도 핵무기 비축에 힘쓰고, 그 핵무기들을 미국에 사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말로 위협스러운 상황은 현재 핵무기를 소유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만으로도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될 수 있음에도 어마어마한 살육 무기를 만들어 내는 일에 광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생태학자들과 군사전문가들 외에 세계 정세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세계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도화선은 중동 지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는 언제 큰 불더미에 휩싸이게 될지 모른다. 종말이 가까웠다.

인류 역사가 종말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계속되는 것 아닌가? 한 사회가 다른 사회를 대치하고, 한 세대가 다른 한 세대를 잇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 아닌가?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전부터 해오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대답은 이렇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종말’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종말과 그 의미가 다르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코스모스(Kosmos)의 종말을 이야기한다. 코스모스란 ‘세상’이라는 뜻의 헬라어로서, 그 의미는 ‘통치권의 체제’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종말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세상 통치 체제의 최후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행해왔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통치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오랫동안 인간은 스스로 통치하려 했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고자 했으며,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통치 체제를 시도해 보았다. 평등과 정의를 추구해 왔으며, 이를 위해 통치 체제를 바꾸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의 결과 인간이 부패하지 않고 스스로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가장 최근에 생긴 공산주의 체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부패의 형태로 빠져들었다.

그렇다면 평화에 대한 세상의 외침, 사랑에 대한 세상의 갈구,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자는 세상의 함성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해결책도 있을 수 없다.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 체제를 고대한다. 그것은 전세계를 다스리는 한 왕국이다. 우리는 우리 왕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 의가 온 땅을 덮기를 기다린다. 장차 임할 이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 예언서인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차 례

3	머리말
4	경고의 말
9	계시
30	네 가지 메시지
45	세 가지 메시지
51	공중 들림받음
58	누가 지구를 소유하고 있는가
66	흥한 소식
79	특별한 두 무리
88	재앙
92	화, 재난, 고통
104	왕의 예시
108	특별한 두 증인
120	사람과 장소
127	적그리스도
135	마지막 경고
143	재앙이 닥친다
147	절망적인 세상
159	거짓 교회
170	파산
181	예수의 지상 재림
188	완전한 정부
209	우리의 새 주소
217	강 같은 평화

계시(啓示)

성경은 유일하며 세상에 있는 어떤 책과도 다르다. 이 책은 끊임없는 비판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지난 수 천년 동안 성경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망치질을 당했다. 그 망치들은 남아 없어졌지만 성경은 아직도 건재하다.

성경은 2,000 여 년에 걸쳐서 40 여 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된 책으로서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책이다.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분은 요한이 천사로부터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1:19)는 명령을 받고 그가 환상중에 본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한 부분(1 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교회와 교회의 봉사에 관한 일, 세상에서 감당할 교회의 증거 등에 관해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들을 요한이 기록한 부분(2-3 장)이다. 이 편지들은 교회 시대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마지막 세번째 부분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당한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데(4-22 장), 이 예언은 장래에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에 속한 일이다.

계시록 1:1-2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다. 1:1 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apokalypsis)’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의 문자적 의미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이다.

시청 앞에 제막되기 직전의 동상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고, 시장이 나와 연설을 하고, 그 동상을 제작한 예술가가 그 동상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이윽고 극적인 순간 덮고 있던 막이 벗겨진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이후로 시청 앞을 장식하게 될 동상을 보게 된다. 가려진 막을 벗기는 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apokalypsis)’이다.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다. 눈과 마음에 막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예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시 14:1).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알아보려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오늘날을 포함한 마지막 세대에는 그분의 귀하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 1:2).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충실히 나타내는 증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살펴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1:1)

1 절은 이 계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경로를 알려 준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앞으로 드러나게 될 영광도 보여주셨다. 십자가에 관해서 성경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히 12:2)라고 했다. 계시록의 거의 모든 내용은 아버지께서 영원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될 자리를 그에게 보여 주시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즐거움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시를 그분의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는 그것을 요한에게 주었다. 따라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고 한 것이다.

요한은 첫번째 서신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 아비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 1:1-3)고 했다.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를 충실히 기록했다. 이 계시는 음성만이 아니라 환상으로도 주어졌다. 요한이 환상중에 본 영적 실체들은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가 본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계시록 1:3

계시록에는 축복이 함께 담겨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1:3)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계시록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였다. 일곱 교회에서 읽혀지기를 바라고 쓰여졌기 때문에 각 교회를 위한 사본도 만들어서 보냈음이 틀림없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서점이 없었다. 글쓰는 종지도 매우 귀했다. 초기에 글을 쓰는 종이로는 이집트의 파피루스가 있었는데, 당시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를 귀히 여겼는데, 가격을 올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는 글쓰는 종지로 양피지를 발명해 냈으나 그것 역시 귀했다. 그리스도 당시에 대형 도서관이 있기는 했지만 개인이 책을 소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나마 개인적인 편지를 쓸 도구를 갖추고 있었기에 각 교회에서는 편지의 사본을 받으면 그것을 교회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당시의 교회에서는 서신서들과 계시록을 읽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거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요한이 계시록을 ‘예언’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라. 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미래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과거적 해석법**이 있다. 이것은 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로마 제국에 맞서 대항한 교회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즉 계시록은 여러 황제가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로마 시대에 기록되었으며, 따라서 그 예언은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이미 완성되고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역사적 해석법**이 있다. 이는 계시록을 세계의 체제에 대항한 교회의 투쟁사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예언들은 로마 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고 본다.

셋째로 **영적인 해석법**이 있다. 이 해석법에 의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완전히 혼동이 되어 아무도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말씀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모든 사건들을 영적 비유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의 권위나 교훈이 훼손된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적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미래적 해석법**이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관점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말씀한 그대로를 의미하며 또 의미하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거나 어떤 의도에 맞추려고 왜곡시킬 필요가 없다. 즉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려는 것이다.

계시록 1:4-5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광(1:4)

계시록에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온다. ‘일곱’은 완전한 수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함 또는 총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칠 일이 일주일이 되고 일곱 음표가 한 음계를 이루며, 무지개에는 일곱 가지 빛깔이 있다. 따라서 ‘일곱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일곱 교회는 작은 원을 이루고 있다. 소아시아에는 이 일곱 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다. 그 중에는 골로새 교회도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일곱이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이므로 “일곱 교회”는 완전한 교회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록에는 또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뇌성,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등이 나오는데, 모두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을 나타낸다.

여덟이라는 수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여덟 번째 날은 새로운 주간이 시작이 되고, 일곱 음표 후의 여덟 번째 음표는 새로운 음계를 시작한다. 헬라어의 자모(字母)에는 각각 고유한 수가 매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총 숫자가 모두 여덟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롭다(Jesus, Christos, Kurios). 그분은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신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 오실 분이시다. 또한 동시에 계신 분이시다. 만물은 하나님과 ‘영원한 현재’의 상태에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광”라는 구절(계시록 3, 4, 5 장에도 언급되어 있다)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령의 완전하신 사역을 가리킨다. 이사야서는 성령의 일곱 가지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여호와와 그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사 11:2)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다(1:5).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충성된 증인이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 오셨다.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실 때,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8-9)라고 하셨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의무이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행 1:8).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martus)’인데 여기서 순교자라는 뜻의 영어 ‘martyr’가 파생되었다. “충성된 증인(순교자)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먼저’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우선 순위의 의미**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탁월함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분은 다시는 죽지 않을 영생의 몸으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나 두 번째 죽음을 맞은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을 영생의 몸으로 살아나셨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1:5). 이는 왕국 시대에 예수께서 갖게 될 위치와 칭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시 8:5) 주셨다. 세상은 혼란하고 사단의 세력과 지배 아래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오실 때에 임할 영광의 그 나라를 고대하고 있다.

계시록 1:5 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말라! 사단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의심하게 하려고 애쓴다. 사단은 “너는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너는 틀렸다(실패했다)! 너는 하나님의 규례에 맞추어 살지 않았다. 예수는 너 같이 악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속삭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롬 5:8).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분을 거역할 때에도 사랑하셨고 위하여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좇아 행하려고 한다면,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더 많이 체험할 것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1:5)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인간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계시록 1:6-7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좀더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들의 나라로 삼으신 그에게”] (1:6)

구약의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사역이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 일을 할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열두 개의 돌이 박힌 흉패를 착용했다. 돌패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리하고 계시다.(히 4:14)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백성을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백성들 앞에 서게 된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1:6)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인간의 시대는 거의 끝났다. 인간에 의한 세상은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다.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마 24:22). 우리는 지금 감해지고 있는 날들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속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할 것이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임하셨나니”(유 14 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골 3:4). 그분은 영광중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땅에서 천 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성경에는 우리가 해마다 예루살렘에 모여 경배를 드리고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슌 14:16). 그 때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대단할 것이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1:7)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라고 예언했다(단 7:13).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지고 구름으로 가려졌는데, 그 때 천사들(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다(행 1:11).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에서 “구름”은 성도들의 구름, 증인들의 큰 구름으로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은밀히 오시지 않을 것이다. 비밀스러운 작은 방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며, 선택받은 특정한 몇 명만 그것을 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이 그분의 오심을 알게 될 것이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848 년, 1878 년, 1917 년, 1918 년, 또는 사람들이 제시한 수많은 연도와 날짜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분명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이론을 반박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비밀스러운 방으로 오실 것이며, 소수의 사람 외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마 24:26),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1:7)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를 찌른 자들”이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스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쩍이나”라고 물을 것이며(슥 13:6), 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라고 했다.(슥 12:10)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에 자기 민족이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한 것과 그 때까지도 여전히 영적 소경 상태에 있음을 인하여 매우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1:7). 스가라는 그 슬퍼함이 죽은 독자로 인한 여인의 통곡과 같을 것이라고 했다(슥 12:10).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소경됨을 인해 슬피 울며 애곡할 것이다.

계시록 1:8-9

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1:8)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원성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스스로를 알파(Alpha)와 오메가(Omega)라고 하셨다. 이것은 영어의 A 와 Z 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끝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계시록 21:6 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존재이시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어서 요한은 자기가 처음으로 이상을 볼 때의 상황을 설명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1:9)

요한의 아름다운 검손이 보이는 구절이다. 그는 자기를 위대한 지도자로 말하지도 않고, 혹은 자기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 계급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셨다. 우리는 모두 한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께는 특별한 사람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행 10:34)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드와이트 무디(Dwight Moody), 찰스 피니(Charles Finney), 존 웨슬레(John Wesley), 존 녹스(John Knox), 마틴 루터(Martin Luther)에게 기울이셨던 관심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울이고 계신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요한은 “나는 너희 형제요 동참하는 자라”고 말했다. 오늘날 사역자들은 형제요 동참하는 자와 같은 자세를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고전 3:9).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따라서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는 한 백성이다. 무리가 자기 앞에 제사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यो. 나는 신이 아니요”(행 14:14-15)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을 똑같이 생각하고 사랑하신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눈가림만 하여 적당히 대할 수 없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신다. 하나님께 압력을 넣을 수도 없고 강제로 권할 수도 없다. 그분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 애쓴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똑같이 대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신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1:9)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이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약 5:7)라고 했으며,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 여호와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라고 격려했다(벧후 3:8-15). 또한 바울은 인내하라고,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했다.(살전 1:10)

로마 제국하의 첫번째 **대박해**는 네로 정권 때 있었다. 그 때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박혀 처형당했다. 바울과 베드로도 이 때 죽었다.

그 후 도미시안(A.D. 81-96 년) 황제 때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났다. 약 4 만 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 갔다. 요한이 밧모 섬으로 귀양간 것은 바로 이 시기이다. 그 곳에서 요한은 이상을 받았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밧모 섬으로 추방되었다.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요한은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지기도 했으나 굴하지 않았기에 에게 해에 있는 에베소에서 약 32 마일(약 51.2Km) 떨어진 소아시아 해안의 바위가 많고 험준한 작은 밧모 섬으로 보내졌다.

그가 밧모 섬으로 추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의 박해와 소란함으로부터 떨어진 조용한 장소로 그를 옮기신 것이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도 밧모 섬에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밧모 섬에서(A.D. 96 년) 에베소로 돌아온 이후에 계시록을 기록했을 수도 있다.

계시록 1: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1: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라는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주일에 계시가 임했다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는 여덟 번째 날인 한 주간의 첫번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이 날이었고, 교회가 함께 모였던 날도 이 날이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명하기를 “매주일 첫날”에 함께 모였을 때 연보를 내어, 자기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했다(고전 16:1-2).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떤다.(행 20:7)

초대교회사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불렀는데, 이 날을 안식교인들은 콘스탄틴 대제가 제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한다. 실제로 콘스탄틴 대제보다 2세기 앞선 터툴리안은 주일이 교회가 성찬식을 가지는 유일한 날이었다고 썼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 날 부활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그의 논리이고 따라서 절대적인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일주일의 첫날이 예배하는 날로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요한이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헬라이어 성경에 근거해서 1:10 을 번역하면 “주의 날에(on the Lord's day)”라고 하기보다 “주의 날 안으로”(unto the day of the Lord)”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시간의 방**으로 데려가셨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요한을 마지막 시대로 옮겨가신 것이다. 거기서 요한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전쟁과 심판들을 직접 보게 된다. 예수님은 요한을 미래의 주의 날로 옮기셨고, 요한은 자신이 정말로 그 때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기록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을 때 그것 역시 일종의 시간의 방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에 앞서 주님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열세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 곳에서 변화되셨다. 그분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지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거기 있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마 16:28 ~ 17:4)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들은 시간의 방에서 미래를 본 것이다. 그들은 장래에 있을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관해 이야기하고 계셨다.

어쩌면 요한도 이렇게 주님께 이끌려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므로 요한을 잠시 영원의 차원으로 이끌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신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분은 전지하시므로 모든 것을 아신다. 무슨 일이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우리들 삶은 그분께는 마치 영화의 재상영과 같다. 따라서 요한이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보았을 가능성도 많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것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주의 날 안으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록 1:11-16

가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1:10-12)

“일곱 금촛대”는 광야에서의 성막을 연상시킨다(출 25:31-39). 성막의 성소 안에 비치된 거룩한 기구들 가운데 금촛대가 있는데, 이를 “황금 메노라(Golden Menorah)”라고 부른다. 그것은 본줄기에서 가지가 셋씩 양쪽으로 나와 있는 나뭇가지 모양의 금촛대로서, 성막 기구 가운데 하나이다. 이 일곱 가지에는 촛대로 쓰이는 작은 등잔들이 달려 있고 이 촛대는 성소를 밝혀주고 있다.

이 일곱 금촛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곧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시키면 일곱 금촛대는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고 말씀하셨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1:13)

일곱 개의 금촛대 사이를 걷고 계신 이는 “인자”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인자라고 하셨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한 다니엘의 예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단 7:13-14). 계속해서 요한은 인자의 옷차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 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1:13-16)

촛대 사이를 걷고 계신 주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마 18:20)고 하셨다. 요한은 교회 사이에서 계시는 주님을 뵈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 주님은 지금도 일곱 개의 금촛대, 즉 모든 세대의 주님의 교회 사이에 계신다.

요한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개의 별을 보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참조. 계 1:20). “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전달자(messenger)라는 의미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전달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기쁨과 위로가 되는가!

이 부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서술적으로 묘사한 유일한 부분이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서술적으로 묘사했다(단 7:9-10). 계시록 1:13-16 까지의 말씀은 고난받는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광중에 계시는 높으신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요한은 영광중에 계신 주님을 보고 서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 장에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5, 24)라고 기도하셨다. 주님은 그 영광이 다시 되돌려져서 우리가 영광스런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라신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나중에 뵈게 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 주님의 얼굴은 한낮의 태양과 같이 빛나고 그분의 머리털은 양털 같고 눈처럼 희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좌우에 날 선 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히 4:12)

계시록 1:17-18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1:17)

요한은 주님을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졌다. 그는 그 모든 환상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다니엘은 아주 놀라운 환상을 받고 엎드려졌다.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단 8:27). 다니엘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계시를 받은 후 실제로 앓았다. 사도 바울도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육체에 가시를 받았다고 했다.(고후 12:7)

본문에 의하면 요한은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계시록을 읽어나가다 보면 요한이 여러 번 엎드러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경험을 겪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영적 능력의 체험이다.

예수님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1:17-18)

예수님은 음부와 사망을 이기셨다. 그분은 승리하셨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주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6)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라.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사 61:1). 이미 죽어 무덤과 음부에 갇힌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음부(헬리어 Hades)를 열어 갇혀 있던 영혼들을 놓아주셨다.

사도 바울은 위로 올라가신 주님이 먼저 땅 아랫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라고 했다. 주님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다(엡 4:8-9). 베드로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했다(벧전 3:19). 예수님은 음부를 열어 믿음을 가지고 메시야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구하셨다.

계시록 1:19-20

계시록의 열쇠가 여기서 발견된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1:19)

‘장차’라는 말은 헬리어로 ‘메타 타우타(meta tauta)’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일 후에’라는 의미이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요한이 본 것으로 계시록 1 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환상 부분이고, 둘째는 “이제 있는 일”, 즉 계시록 2-3 장의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는 후**(meta tauta)”에 될 일로서 요한이 보는 미래의 사건들이다.

계시록 4 장이 ‘meta tauta’, 즉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렇다면 무슨 일 후라는 말인가? 교회의 일이 완성된 후라는 뜻이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meta tauta)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계 4:1)

계시록 4:1 부터는 미래에 관한, 즉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교회의 증거가 이 세상에서 다 마친 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다. 다음과 방식을 따르면 계시록의 구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요한이 본 것,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이 본 환상을 설명하신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1:20)

‘사자(angels)’란 ‘전달자(messengers)’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일컫는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는 ‘전달자’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들,’ 곧 일곱 교회의 사역자들을 가리킨다.

“내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에서 ‘일곱 교회’는 완전함을 상징한다. 이 사실에서 이 메시지는 완전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적인 적용으로서, 이 메시지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해 쓰여진 것이며, 당시의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 적용으로서, 이 메시지는 교회의 일곱 시기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셋째, 보편적 적용으로서, 이 메시지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메시지들은 많은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네 가지 메시지

계시록 2:1-3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신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2:1)

일곱 교회에 보내는 모든 메시지에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각 메시지들이 모두 친히 보여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는 것이고, 1 장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로 시작되는 말씀은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이다.

예수님은 각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2:2)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일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 이면에 있는 동기까지도 알고 계신다. 어떤 행위들은 다 타버리고 말 것인데, 헛된 영광(남에게 보이려고)을 구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 6:2, 5)고 말씀하셨다. 언젠가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 즉 행위의 종류와 태도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계 2:23; 20:13)

주님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2:2)

초대교회에는 각 교회를 순회하는 목회자들이 있었다.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도들이었고(그들은 스스로 사도임과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들로서 각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사역했다. 이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교회를 방문해 제멋대로 행함으로써 교회에 큰 문젯거리였다. 이런 일에 대비해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소책자가 나올 정도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와께서 ‘큰 칠면조 요리를 준비하라’고 하셨다”면서 칠면조 요리를 먹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인 것이다. 또한 어떤 자가 성령을 빙자해서 자기에게 선물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역시 거짓 선지자이다. 순회하는 목회자들은 원래 이를 동안 머물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 머무르면서 자꾸 무언가를 뜯어내려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 이러한 조연들은 순회 목회자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교회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에베소 교인들은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거짓 사도인 자들을 잘 분별하였다. 주님은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셨고 그들의 영적 순결도 칭찬하셨다. 에베소 교인들은 악한 것을 행하지 않았고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2:3)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적인 교회였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지 않았으며 인내하고 잘 분별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했다.

계시록 2:4-5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2:4)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활동은 잘하고 있었으나 사랑은 잊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부담, 습관, 형식, 의식 등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성직자로서의 봉사가 하나의 직업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후 5:14)라고 했다. 바울을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1, 3)

우리는 맡겨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일꾼이 될 수도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고 몰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혹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예수께서는 비록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했을지라도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2:5)

많은 사람들이 “저런, 당신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군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처음 사랑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버리는 것’이다. 만일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 찾을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3R로 불리는 이 방법은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Remember)하고”, 즉 전에 가졌던 사랑을 생각하고 ‘회개’(Repent)하며, ‘반복’(Repeat)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 행위, 곧 처음 사랑의 행위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처음 행위를 반복하는데, 사랑으로 말미암아야 한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교회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대부분의 교회가 회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교회는 두 곳뿐이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2:5)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다. 그 자리는 어디인가? 그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다. 그분은 촛대 사이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교회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다.

불행히도 오늘날 교회는 당파, 분쟁, 분열 등으로 가득 차 있어 많은 경우에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져 있다. 교회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분쟁과 온갖 압력과 긴장들을 느끼게 된다. 주님은 “나는 사랑이 없는 교회에는 있지 않겠다”고 하셨다.

계시록 2:6-7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2:6)

‘니콜라당’이라는 말은 헬리어 ‘니카오 라오스(nikao laos)’에서 나온 것으로 ‘성도(laos:백성) 위에 제사장의 교권을 세우는 것(nikao:지배하다)’을 의미한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서열을 세우는 것을 싫어했는데, 주님은 이를 두고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고 하셨다.

왜 그런가?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두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분께 이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오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을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거쳐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것을 싫어하신다. 모든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라고 말씀하셨다.

각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모든 교회마다, 심지어 타락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2:7)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과실나무들을 주셨다. 그 가운데 특별한 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데, 하나는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로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다.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즉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법한데, 정작 생명나무의 열매 대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왜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먼저 선악과를 먹었는가? 아마도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원한다면 생명나무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 어려움, 질병들을 모두 아담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 그들은 지식을 자기의 신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육신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는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마저 따먹고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동산 위에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창 2:9, 16-17; 3:24)

그룹들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낸다.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러한 타락과 죄 지은 육신으로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어리석은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들을 두어 동산을 지키게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긍휼을 심판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산 입구에 그룹들을 세워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보호하기 위함이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 중앙에 있다. 이기는 자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우리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요한이 사망할 때까지(약 A.D. 99년) ‘사도 교회’로 존재했다. 요한이 계시록을 저술할 시기만 해도 초대 교회에는 처음 사랑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다.

초기에는 열정이 뜨거웠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 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강권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점점 식기 시작했다.

계시록 2:8-9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 이후에 생겼는데, 그 후 2세기(2-4세기) 동안 있었으며, 로마 정부의 잔악한 박해를 겪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 한 로마의 박해 아래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은 약 6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2:8)

여기서 ‘사자’라는 말이 교회의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요한의 제자로서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Polycarp)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는 90대의 나이에 순교했는데, 로마 정부는 그를 화형에 처했다. 화형 집행관이 “나도 당신 같은 늙은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보기 싫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당신을 놓아 주겠소. 그러면 당신은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오”라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8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다. 그동안 예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나도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화형으로 인한 고통을 상기시키며 위협하는 집행관에게 그는 “네가 당할 불보다는 뜨겁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드디어 집행관이 장작에 불을 붙였을 때 불꽃은 폴리갑의 몸을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것을 본 집행관은 창으로 폴리갑을 찔렀고 쏟아져나온 피로 인해 불이 꺼졌다. 사람들은 폴리갑의 시체를 가져다가 기독교 식으로 장례를 치러 주었다.

박해와 시련을 당해야 했고 많은 믿는 자들이 순교했으며, 심지어 교회의 감독마저 순교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양육하고 목회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양무리와 함께 시련과 고통을 나누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2:8)

서머나 교회가 순교를 당해야 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일깨우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예수님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죽음을 이긴 승리를 일깨워 주심으로써 죽음에 직면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 것이다.

서머나 교회에 요한은 글로써 전하고 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2:9)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과 대조를 이룬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요하다”고 했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궁핍하다”고 하셨다.

때때로 우리의 평가 기준과 주님의 그것이 다르다. 서머나 교회가 자기를 평가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궁핍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지 아니하셨느냐.”(약 2:5)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2:9)

초대교회가 당한 박해는 대부분 유대인이 선동하고 부추긴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각 성에서 그를 대적하도록 선동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국적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우리도 변절하여 유대인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회당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너는 누구의 자손인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 말에 주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하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나를 증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요 8:31-47)라고 하셨다.

계시록 2:10-11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2:10)

주님은 교회가 당할 모든 시련과 박해 뒤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요 16:33)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고 악한 행위 뒤에 있음을 깨달아야만 한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2:10)

여기서 ‘십 일’이란 로마 정부가 행한 열 차례의 큰 박해를 가리키는 것 같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의 말씀을 하거나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아 깨끗하게 될 교회이다. 그들은 순교하며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은 결코 교회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교회를 깨끗케 한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셨다.

생명의 면류관 외에 의의 면류관도 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딤후 4:8)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2:11)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 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는 온 세상이(그리스도인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때를 말한다. 이 때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게 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20:6)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사단은 천 년 동안 묶여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된다. 그 천 년 동안 예수님은 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때 교회는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천 년이 끝날 때쯤 사단은 잠깐 풀려나서 열방을 속이려고 다시 세상을 구석구석 돌아다닌다. 사단은 큰 무리의 군대를 모아 그리스도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려고 한다.

때때로 교인들이 내게 묻는다. “천 년이 다 끝날 때쯤 제가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물음에 나는 “결코 그럴 리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는 새로운 육체가 될 것이고, 따라서 그 때에는 결코 사단에게 현혹될 리가 없다.

천 년 왕국의 마지막 때, 즉 사단이 잠깐 놓일 때, 천 년 왕국 통치 기간 동안에는 의롭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일시적인 믿음의 시련이 올 것이다. 마귀의 유혹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를 것인지를 시험하는 때이다. 놀랍게도 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배반할 것이다.

계시록 2:12-17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신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 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2:12-13)

버가모 시는 우상 신을 관능적으로 숭배하던 도시였다. 하지만 이방 우상 숭배가 극심한 버가모에서도 충성스런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방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교회의 일원이었던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버가모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셨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2:14-15)

이방의 우상 숭배는 가장 가증스러운 관행으로 그 특징을 이루어 왔다. 이교 신전에는 여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실제로 매춘부였으며, 신전의 대부분의 재정은 이 매춘으로 충당되었다. 그들의 종교 의식에는 여제사장들과의 성적 난행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물질적인 것을 죄악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믿었고 따라서 육체에는 무슨 것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 많은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영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종류의 음탕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 경고했다.(벧전 4:1-3)

버가모의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입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어찌되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교도 의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고집했다. 이것은 발람의 교훈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게 만드는 죄악이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는 말은 성직 제도를 세우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미워하노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것이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2:17)

‘감추었던 만나’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요 6:35)라고 하셨다.

‘흰 돌’은 인정 또는 승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투표할 때 흰 돌은 ‘찬성’을, 검은 돌은 ‘반대’를 의미했다. 오늘날에도 어떤 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비슷한 용례를 채택하고 있다. 새로운 회원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흰 공이나 검은 공을 투표함에 던지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검은 공을 던지면 그 신청자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두 가지 죄악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우상 숭배와 성직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버가모 교회 시대는 316년 콘스탄틴 황제의 통치 아래 기독교가 승인되어 발전하면서 형성되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시작이었다.

계시록 2:18-22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셨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2:18)

성경에서 주석은 심판을 상징한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2:19)

두아디라 교회는 하는 일들이 많았다. 두아디라 교회는 가장 활동적인 교회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 같은 훌륭한 특징을 지닌 교회였다. 그러나 주님께 다음과 같이 책망을 받았다.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2:20)

‘이세벨’은 교회에 우상을 들여와 영적 간음을 행하게 한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2:21-22)

‘교회가 대환난을 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일부 교회는 대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이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 곧 영적 간음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가 대환난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회개치 아니한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에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교회에 예수,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의 형상을 꾸며 놓는가?

계시록 2:23-29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끼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2:23-29)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져 있다. 철장은 왕국 시대의 지배 형태를 나타낸다. 사람들은 선한 일만 행하도록 강요될 것이며, 우리의 의무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교회로서 그 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세 가지 메시지

계시록 3:1-6

사데 교회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신다.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3:1-3)

개신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 있다. 개신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극적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도 믿지 않는다. 천국이나 지옥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믿음을 부인하고 있다. 많은 개신교 교회가 단순한 사교 클럽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다. 주님께서는 그 남은 것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완전한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신교는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에서 받아들였던 이방 우상 종교의 관습들을 계속 따르고 있다. 여전히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으며, 이방 우상 종교의 상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방 종교의 축제일을 지킨다. 그들의 개혁은 불완전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의 교회를 향해 ‘네 행위의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느냐? 그것을 굳게 하고 회개하라.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느 시간에 올지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셨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놀라움으로 맞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셨다(마 24:42, 44).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올 수 없으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고 했다.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3:4-5)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이다. 내가 이 책에서 제하여 버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제해질 것이라고 하셨다(계 22:19). 나는 내 이름이 흐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어도 나는 알 수도 없고,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3:6)

계시록 3:7-13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은 믿음의 교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되기를 바라신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라(3:7-8)

우리는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갖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적은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있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가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3:9)

그 나라가 임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3:10)

본문은 신실한 믿음의 교회는 대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누가복음 21 장에서 주님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눅 21:36)고 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3:11-13)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는 왕국 시대의 한 부분이 될 것이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계시록 3:14-17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에 타락한 교회이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3:14)

1 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되고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6-17).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실제로 창조의 능력이시며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3:15-16)

그들이 미지근한 이유는 다음 절에 나온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3:17)

유물주의를 의지한 그들은 미지근한 상태에 이르렀다.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6:24). 두 가지를 섬으면 미지근한 상태가 된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는 말씀은 참으로 대조적인 관점이다.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가 자신을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에 사람의 표준에 맞추어서 판단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셨다(눅 18:9-14). 우리는 너무도 자주 사람의 표준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기준은 우리가 판단을 받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자신을 주님께 맞추어 보고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까를 생각해 보라. 만일 “글쎄요, 저는 척 스미스 목사님보다 낫네요”라고 말한다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주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고 말씀하셨다. 자기가 가진 의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그 의뿐이다. 믿음으로 얻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하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계시록 3:18-22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셨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3:18-19)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히 12:5-6).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사생아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만을 꾸짖으신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면 징계도 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미지근함을 치료하는 첫번째 방법이다.

미지근함을 치료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열심을 내는 것이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라. 세 번째 방법은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회개하는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3:20)

주님은 우리와 깊고 가장 친밀한 사랑, 즉 서로간에 더불어 먹고 나누는 교제를 갖기 위해 친히 초청하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3:21)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3:22)

공중 들림 받음

계시록 4:1

이제 계시록의 세 번째 부분이다. 4 장은 헬라어로 ‘meta tauta(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4:1)

이제부터 다루어지는 내용은 땅에서의 교회 역사의 마지막이며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이다. 마지막 네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재림에 관해 말씀하셨다. 다시 오실 것을 교회에 경고하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난을 면치 못하리라고 경고하셨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시험의 때에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일, 즉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증거를 다 마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후에 주께서 하늘로 좇아 강림하신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교회는 칠 년 동안 하늘에 옮겨져 있을 것인데, 이 칠 년 동안 땅에는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교회의 공중 들림받음에 대한 주석을 더 참고하려면 본 저자의 『Snatched Away!』 를 보라)

교회의 증거 사역이 모두 마치면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게 된다.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울릴 것이다. “이리로 올라오라!”

나는 “일어나 씻으라!”는 나팔 소리와 “잠자리에 들라”는 나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와서 먹으라!” 그리고 “돌격하라!”는 나팔 소리도 들어보았다. 그러나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나팔 소리가 어떠한 종류의 것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들으면 곧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고전 15:51-51).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7). 성경에는 우리가 영원히 하늘 나라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단지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분을 믿는 자인 우리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그분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시면 우리도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호와와 증인들은 “나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아무 할 일 없이 손가락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은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 대환난이 있을 칠 년 동안 하늘 나라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와서 통치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천 년 동안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며 다스릴 것이다.

만일 주님이 나에게 구름 위에 앉아 손가락이나 만지작거리며 있으라고 명하신다면, 나는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다릴 수가 없다. 그것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하늘 나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당신네들은 늘 ‘멀지 않아 곧 있을 쾌락’ 또는 ‘하늘에 있는 완전한 행복’ 같은 얘기만 하는데, 그보다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는 하늘 나라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하늘 나라를 고대한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을 것인데, 그분의 함께하심 속에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데 6일 걸렸다. 그런데 하늘 나라는 2천 년 동안이나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쯤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라! 그런데도 하늘 나라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가?

교회가 들림받는 일은 계시록 4:1 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교회가 완성된 이후이다. 요한은 “위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나팔 소리를 듣는다. 이제부터 요한은 교회가 이 땅에서 떠난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늘나라의 광경이 묘사되고 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뒤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4:2)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것은 혈과 육으로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보좌”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이다. 요한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형체를 본 것은 아니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4:3)

벽옥은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투명한 수정석으로 자주빛을 띠고 있다. 홍보석은 선홍색이다. 그리고 홍보석은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흉패에 붙였던 첫번째 돌이고, 벽옥은 마지막에 붙였던 돌이다.(출 28:17-20)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4:3)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그는 투명한 수정석으로 선홍빛이 나는 자주빛의 찬란한 벽옥과 홍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둘러싼 에머랄드 빛의 녹색 무지개도 보았다.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4:4)

흠정역 성경에서 ‘자리(seats)’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보좌(thrones)’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십사 명의 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성경 해석자들이 많다. 이들은 계시록 19:8 에서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의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십사 장로들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교회인 우리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장로들이 보좌에 있는 교회를 나타내며, 그들이 하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본다. 이것은 매우 그럴듯한 해석이다. 또 다른 해석은 이십사 장로들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곧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대표들과 신약 시대의 열두 사도들이다. 어쩌면 천사나 그룹과 같은 피조물일 수도 있다. 아니면 하나님 보좌 주위의 이십사 보좌에 앉은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켜 놓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4:5)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성령의 일곱 가지 사역을 기록한 이사야 11:2을 다시 한 번 보라.(계 1:4의 강해 참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4:6)

네 생물은 야생 동물이나 우둔한 동물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창조하신 존재들로서, 에스겔 1장과 10장을 비교해 보면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룹임을 알 수 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4:7)

어떤 사람들은 네 생물에 관한 이 묘사가 4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라고도 한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유다 족속의 사자로 나타내고 있으며, 마가복음에서는 고통받는 종을 의미하는 송아지,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신성을 상징하는 독수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시록 4:8-11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가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4:8-11)

본문에는 하늘 나라의 영광이 전개된다. 하늘 나라에 갔을 때 대도시에서 처음 나온 시골뜨기처럼 사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사람들에게 “저게 뭐지요?”라고 물어 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계시록 4 장을 자세하게 잘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우리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십사 장로들의 보좌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그룹들도 볼 것이다. 그룹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에 이십사 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다 위에 엎드려(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지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좋은 싫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한다면 곤란하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좋은 싫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

이러한 영적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부족한 부분이 모두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채움받지 못하고 항상 방황하여 무언가를 더 이루려고 하지만 결코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야 비로소 의미 있고 성취하게 된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라고 했다. 우리가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길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귀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룰 때에 우리는 가장 만족스럽고 온전한 삶에 이르게 된다.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려 든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다. 원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바탕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벽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벽과 싸울 수도 있고 원한다면 벽에 부딪쳐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우연히 그 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 속에 철막대기를 집어넣고 시멘트로 채우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결국 우리 자신만 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벽은 조금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벽이 우리의 피로 물들 수는 있겠지만 허물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싸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만 고통을 당할 뿐이다. 하나님과 싸워봐야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우리가 켈 때요, 하나님과의 싸움을 중단해야 할 때이다.

누가 지구를 소유하고 있는가?

계시록 5:1-7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5:1)

흠정역(KJV)에서 ‘책(book)’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두루마리(scroll)’를 옮긴 것이다.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5:2-4)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책이 있다. 책은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다.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친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과 땅에 그 책을 능히 펼 자가 보이지 않자 요한은 큰 소리로 슬피 울기 시작한다.

여기서 책은 무엇이고 인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책은 틀림없이 땅의 권리 증서일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땅을 지으시고 그 땅을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고 말씀하셨다. 인간을 에덴에 두시면서 한 가지 금지사항을 주셨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으로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고 하셨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 어느날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에게 주어 그도 먹었다. 이로써 그들은 자기들을 속이고 유혹했던 사단에게 자기들이 가진 땅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롬 6:16)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먹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했다. 먼저 하나님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불순종의 행위였으며, 사단에게는 자기를 복종시킨 순종의 행위였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땅에 대한 권리를 빼앗겼다. 땅의 권리 증서는 사단에게로 넘어갔고 세상은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속하러 오셨다. 다시 말해서 ‘밭(field)’을 사려고 오셨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마 13:44). 밭에 있는 ‘보화’는 교회이다.

예수님은 땅을 사시려고 돌아가셨다. 세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인간에게 주셨고, 인간은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겼으며, 사단은 그 후로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오시자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천하만국은 나의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마 4:9). 사단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자기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그것을 모두 넘겨줄 권세가 있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사단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 논박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타당한 주장이었다. 그 때 세상은 모두 사단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굶주림과 기형아 출산에 대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전쟁과 온갖 범죄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라.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보지 못하고 사단의 명령만을 본다. 사단은 세상의 군주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단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요 14:30).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단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고후 4:4).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알게 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은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구속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그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금이나 은 같은 썩어질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벧전 1:18-19). 예수님은 세상을 사셨지만 그것을 소유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도록 두셨으나 우리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히 2:8). 예수님은 땅을 사셨으나 아직 그 권리증서를 가지고 자신이 그 땅을 샀노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이제 곧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은 ‘재산을 되돌려 받는 법’이다. 만일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재산은 6년 동안 새 주인에게 있게 된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 당신이 봉해진 증서의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으면 그 재산을 도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유대인의 법에 의해 당신의 친척이나 가까운 혈족이 당신을 대신해서 갚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재산은 가족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 재산을 갚는 친척을 히브리어로 ‘고엘(goel)’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근친 구속자’이다.

7년째 되는 해에 그 친족 중에서도 갚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재산의 소유권은 영원히 바뀌게 된다. 그러나 다시 갚을 기간이 지나가기 전이나, 본인이나 ‘근친 구속자’가 문서의 요구를 다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을 결코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재산에 대한 돈을 지불하기 원한다면, 성문에서 그 마을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인봉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인봉을 떼고, 그 문서의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팔렸던 그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만일 종으로 팔렸다면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하지만 7년째에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구속법, 즉 해방되는 법이다.

이 법에는 심오한 뜻이 있다. 사람은 6,000년 전에 죄의 종으로 팔렸었다. 구속받을 권리의 기간이 곧 끝난다. 사단은 이 땅을 약 6,000년 동안 소유해 왔고, 우리는 7,000년 시기로 들어가는 무렵에 있다. 이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가 곧 시작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6,000년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끝이 매우 가깝다는 것이다. 성경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마 24:36)

계시록 5장의 하늘 나라 장면에서 이 두루마리는 ‘지구의 차압문서’이다. 때는 왔고 6,000년의 만기가 다가왔다. 천사는 큰소리로 “누가 이 책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시 구속할 수 있으랴?”고 외쳤다. 그런데 인봉을 뿔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람은 지구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구속할 능력이 없다. 요한은 그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자 크게 울었다. 왜냐하면 이 책을 펴서 계약한 것을 갚지 못하면, 세상은 사단의 능력과 통치 아래 영원히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요한의 마음속에 떠올릴 수 없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떠한가 보라.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가? 질병, 슬픔, 고통 등이 모두 이로 인해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이는 정말 슬픈 일이다.

장로 중의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5:5-7)

요한은 유대 족속의 사자가 인봉을 떼기 위해서 책을 취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자가 아니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 하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께 아직도 십자가에 못박히신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흔적이 있었음을 안다. 얼굴에도 상처의 흔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원지기인 줄로 알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마 그분의 얼굴이 상처로 인해 변형되었을지도 모른다. 요한이 하늘 나라에 계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은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얻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라고 예언한 것은, 그리스도를 두고 한 것인데 우리도 그분을 보면 놀라게 될 것이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사 53:2).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사 52:14). 예수께서 심히 맞으셨기에 사람으로 인식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너무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러 교회와 함께 영광중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또한 사단을 보고 놀라워한 사실을 말한다. 루시퍼를 보는 사람들은 놀라 ‘세상에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며 나에게 고통을 준 자로구나’라고 말할 것이다(사 14:10-19). 사단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은 또한

그의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한데,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5:8-14

요한이 본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였다. 그분은 보좌와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 사이에 계셨으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곧이어 온 하늘에는 찬양과 승리의 외침이 시작된다.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5:8)

당신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몇 번이나 드렸는가? 우리는 아직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첫번째로 언급한 내용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9-10). 우리의 첫번째 기도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것이다. 우리 가장 바라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계시록 5 장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때가 이른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5:9-10)

이 노래의 가사를 잘 읽어보라. 누가 이 노래를 부르는가? 누가 이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겠는가? 오직 교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노래가 아니다. 그들은 열방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다. 교회는 열방으로부터 빼내어진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값 주고 대속하신 것이다.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라.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실 때 하늘 나라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기도가 향으로 드러질 때 예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어린 양은...합당하시도다.”

이것은 이 땅에 대환난을 가져오는 첫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의 일이다. 교회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책을 가지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노래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중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노래를 외우고 있다. 그 노래의 곡조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들으면 곧 따라 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5:11)

천천만만의 무리가 보좌 주위에 둘러 서 있다. 얼마나 많은 무리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5:12)

하늘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이다”(히 1:6)라고 말씀하셨다. 수많은 무리의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천국의 영광일 것이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이다 하니(5:13)

성부와 성자가 모든 피조물로부터 똑같은 영광과 경배를 받는다.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5:14)

이는 예수님이 땅의 소유권리 증서인 책을 가지시고 구속 사역을 마치시는 영광스러운 하늘 나라의 광경이다. 그것은 그분이 구속하셨음을 선언하는 것이며,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있는 바이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롬 8:22-23)고 했다. 계시록 5 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값 주고 사신 것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고 계시다. 그분은 책을 가지고 합법적인 그 소유를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흥한 소식

6 장에는 대환난으로 알려진 7년 동안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대환난은 19 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6 장에서 19 장까지는 이 오래된 행성인 지구에 닥칠 공포, 멸망, 황폐에 대한 이야기이다.

계시록 6:1-2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시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 같이 말하되(6:1)

여기서 생물을 ‘짐승(beast)’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짐승’이란 우둔한 동물을 지칭하지만 본문의 생물은 살아있는 생물(living creatures)로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스랍’이라 불리는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매우 지적인 피조물이다.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6:1-2)

흰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나는 개인적으로 흰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지상 교회를 세상에서 취하여 가실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성령의 세력도 떠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죽음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살후 2:3, 7-8)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성령의 활동도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마음껏 활동하게 된다.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난 후에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따르므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는 영광스러운 평화의 시대, 곧 천 년 왕국 시대가 따를 것이다. 더욱이 이 흰 말을 탄 자는 대환난의 초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볼 수 없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라는 말은 완전한 정복을 의미한다. 즉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으로부터 권세와 왕위와 나라들을 인도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다.

이미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표시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나는 ‘평화의 상징’이 실제로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그 표는 네로 황제로부터 기원하는데 부שי되고 거꾸로 된 십자가 표시이다. 나는 네로를 적그리스도로 생각한다(17:10-11 강해 참조). 그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표로 이 평화의 상징을 만들었다.

성경에는 권세 있는 사람이 일어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사람은 평화 계획과 경제적 전략을 내세우면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세상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돈이 필요없는 경제 체제를 마련하는데, 모든 사람이 숫자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숫자가 없이는 매매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며, 나중에는 손이나 이마에 숫자 표시를 받게 될 것이다.(13:16)

성경은 이미 2,000 년 전에 이런 제도에 관해 언급했다. 1974 년 10 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몇몇 은행에서는 소위 “현금 없는 사회”라는 제도를 실시했다. 이것은 은행 계좌번호만으로 요금 청구서를 지불하고 모든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모든 것이 은행계좌번호로 관리되는데, 봉급 지불수표를 확인할 필요 없이 고용주로부터 자동적으로 은행에 봉급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잃어버리기 쉬운 현금은 위험한 필수품이다. 많은 공공기관에는 “오후 7 시 이후에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안내문이 있다. 이제는 자동차 휘발유를 사려 해도 카드번호가 필요한 때이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특권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3 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고 재건된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이 우상은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전세계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13 장)

우리는 이 우상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계산하는 재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이론화할 수 있다. 신전에 앉아 있게 될 그 우상은 환상적인 컴퓨터 시스템으로 모든 교역도 컴퓨터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모든 사람이 (컴퓨터에서) 숫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영원한 죽음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은 적그리스도에게 그 왕위를 내어줄 것이다. 사단이 그 왕위를 이 미치광이에게 넘겨줄 때까지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와 세력과 지배 아래 놓여 있을 것이다.

둘째 인을 때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6:3-4)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평화적인 계획을 가지고 올 것이다. 자신을 “평화의 사람”으로 인식시켜려 할 것이다. 이로써 실제로 세상에는 한동안 어느 정도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처음 3년 반 동안 사람들은 이 사람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번영과 평화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평화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천재야! 그는 신과 같은 존재야!” 세상은 그를 경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룩한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한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살전 5:3)

두 번째로 전쟁의 붉은 말이 나오면 세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르게 될 큰 전쟁과 충돌에 빠지게 된다.

계시록 6:5-8

셋째 인을 때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6:5-6)

‘밀 한 되’는 약 1 퀴트(곡식의 건량단위로 1 퀴트는 약 1.10 리터임-역주)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다.

예수님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거리로 나간 사람에게 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때 그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과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마 20:1-2). 오늘날 하루 품삯은 5 만원 정도이다. 그러므로 밀 한 되가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는 말은 식량의 부족이나 기근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격은 품목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당시에는 밀 한 되가 약 5 만원에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금이나 은을 사둬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려고 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고려할 때 가장 가치 있는 필수품은 식량이다. 금이나 은은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 현명해지려면 돈을 밀에 투자하라. 그러면 대환난 때 가장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기근의 때에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림 때에는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의 징조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마 24:7). 이미 어느 정도의 기근은 있다. 실제로 기근이 너무 심해서 꾸어준 것을 되돌려받을 수 없는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을 모두 도울 수는 없다. 그들 모두에게 줄 충분한 양의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극심한 기근이 든 사람들만을 도울 뿐이다. 현대 산업 기술 시대의 비극은 세상에 필요한 식량을 만들어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이러한 사태는 개선되기보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전쟁 뒤에는 기근이 따른다. 지금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식량 공급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3분의 2는 굶주린 상태로 살고 있다. 식량이 남아도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나 땅이 오염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땅에 극심한 기근이 닥쳐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넷째 인을 때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6:7-8)

네 번째 말을 탄 자가 오는데 그 말은 파리한 사망의 말이다. 전쟁(붉은 말)과 기근(검은 말), 사망(청황색)의 파리한 말이 지나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진다. 그런 대학살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계시록 6:9-11

다섯째 인을 때릴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6:9-11)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그들은 대환난 때 순교당한 영혼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죽인 자를 심판하여 달라고 부르짖고 있다.

제단 아래 있는 이 영혼들은 교회나 교회의 순교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하늘 나라로 옮겨져서 그 피로 구속하신 어린 양께 영광의 찬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5장). 대환난 때 순교당한 이 영혼들은 계시록 7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우상을 세우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할 것이다(계 13장). 이들에게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13:15). 그렇지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 우상에 절하면 소망이 없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계 14:9-11).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이다.

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런 걱정은 좋은 것이다. 우리는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회가 하늘로 올리워졌다고 해서 구원의 기회가 끝난 것은 아니다. 대환난 중에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가 들림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증거했던 사실들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러므로 그 때에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다가 순교한 이들은 흰 옷을 입고 그 수가 차기까지, 다시 말해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사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을 듣는다.

어떤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공중 재림을 놓치면 그 다음 기회에 구원을 얻어 제단 아래 순교한 영혼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오늘날 교회를 도우시는 성령의 힘으로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어렵다면, 교회와 함께 성령님이 떠나신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교회가 옮겨지고 나면 혼자 힘으로 순교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는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들과 함께 대환난 전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계시록 6:12-14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제자리에서 옮기우매(6:12-14)

유성이 쏟아지는 등 지구상에 큰 격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 아리조나 주의 사막(Flagstaff 와 Winslow 사이에 위치한)에는 거대한 운석 구멍이 있다. 운석 하나로도 놀랄 만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운석이 로스앤젤레스 같은 지역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때의 참화를 한번 상상해보라.

1908 년 시베리아에 운석 하나가 떨어져 몇 마일에 이르는 숲을 뒤엎어 놓았다. 실제로 폭발과 그 피해가 너무나 엄청나서 물리학자들은 그 운석이 반물질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론상 반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반전 또는 전도된 물질이다. 물질은 전자를 갖고 있는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원자는 양성자의 핵 주위를 돌고 있다. 그런데 반물질 이론에 의하면 반물질의 원자에는 전자의 핵주위를 돌고 있는 양성자가 있다(또는 원자에서는 양성자가 전자의 핵주위를 돌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엄청난 원자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일부 물리학자들은 1908 년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참화는 반물질의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지각 변동 사건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사야는 땅이 술에 취한 자같이 비틀대며 있던 자리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 13:13; 24:20). 요엘도 이와 비슷한 일을 기록했는데 그는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고 했다(올 2:30-3; 3:15-16). 그리고 예수님도 재림 때에 이러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다.(마 24:29-30)

임마누엘 벨리코프스키(Immanuel Velikovsky)가 쓴 「충돌하는 세계」 (Worlds In Collision)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대전제는 금성이 인간 역사 시기에 태양계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 금성이 지구에 매우 가까이 근접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두 번째로 지구 가까이 지나갔으며, 그 후에 금성은 태양계에서 오늘날과 같은 궤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 즉 물이 피로 변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재앙들에 대해서(출 7:14), 금성이 지구에 근접한 결과 수많은 운석이 떨어진 것과 관련시켜 설명하면서 바로 그 때 지구가 궤도를 수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그 시기에 지구상에 일어났던 일들과 성경의 사건들을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금성이 그 시기에 실제로 지나갔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벨리코프스키가 한 행성이 태양계에 들어올 때 발생할 사건들을 묘사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큰 지진이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뿔들(운석 소나기)이 지구에 쏟아지며, 무시무시한 참화가 발생할 것이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한쪽으로 접혀 말리듯 떠나가고 산과 섬도 모두 제자리에서 사라진다. 이것은 지구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다.

앞에서 말한 지각 변동 사건의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이론이 있다. 물리학자들은 지구의 양극에 있는 **지구축의 이동**이 매 5 천 년마다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지구축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현재 지구축은 태양쪽으로 23.5도쯤 기울어져 있다. 이 경사로 인해 4 계절이 생기는데, 오늘날에는 전과 같이 4 계절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한때 남극에는 숲이 있었다고 한다. 조사자들은 남극의 빙하 속 200 피트(약 60 미터) 아래에서 목탄 침전물을 발견해 냈다.

북극 지방과 시베리아는 전에는 열대 지역이었다. 맘모스 화석이 얼음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이것은 과거에 ‘순간 냉동’ 과정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그 맘모스들의 소화기에서 열대 식물이 발견됨으로써 과거의 지구는 현재보다 더 열대성이었으며 풀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리학자들은 지구축 이동이 지구의 모든 산들을 사라지게 하는 엄청난 지각 변동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미국 유타(Utah) 주의 솔트 레이크 시(Salt Lake City) 주위는 원래 바다였는데, 지금은 호수(Great Salt Lake)만 남아 있다. 그랜드 캐년(Grand Canyon)의 남쪽 가장자리에는 많은 화석이 있다. 그 지역은 모두 대해 밑에 있던 부분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마지막 지구축 이동 때에 유타(Utah)와 아리조나(Arizona) 주를 덮고 있던 이 바다가 남쪽으로 범람하여 지금의 멕시코 만을 형성했다고 본다.

지구축 변동이 일어나면 원래 있던 모든 산들은 낮아져 없어지고 다른 부분들이 위로 솟아오르게 되며, 바다가 움직여 큰 해일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지구의 지리적 구조와 표면이 심하게 변동된다.

지구의 지구축 경사가 바뀌기 전에 지구는 마치 꼭대기가 서서히 밑으로 밀려내려오는 것처럼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경사가 바뀐다.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구는 이미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지구축의 이동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가능성이 있는 흥미로운 일이며 아마 이사야가 말한 그 일인지도 모른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자리에서 떠나리니.”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옮겨 태양의 빛을 골고루 받게 하실 수도 있다. 지구가 현재의 축을 갖지 않는다면 지구의 양극 지방에 있는 빙하도 모두 녹아내릴 것이다. 계속되는 열은 지구의 대기를 훨씬 더 습하게 만들고 세계 도처를 풀이 많은 열대성 정글로 만들 것이다.

노아 시대의 홍수도 지구축 변동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일부 과학자들이 마지막 지구축 변동이라고 말한 때와 시기적으로도 매우 가깝다. 이는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다. 대기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자외선과 적외선 투과가 많아져 결과적으로 노화 과정이 빨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인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고 놀라운 책인가를 깨닫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계시록 6:15-17

‘공산주의가 세계를 정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계시록 6:15에 여러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파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6:15-17)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인내로 참고 계셨다. 그러나 주의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오고 있다. 노아 시대에도 홍수가 있기 전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120 년을 기다리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낸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다. 그러나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창 6:3)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연약함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다윗은 부요한 악한 자들이 “여호와가 보시냐 여호와가 들으시냐 그가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시 94:7, 9)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산다. 그러나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고 그 날은 남겨진 자들에게 큰 비극의 날이 될 것이다.

“큰 날”이 하나님의 진노, 즉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는 사실은 다시금 교회를 지상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살전 5:9)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쏟아 부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 드렸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오십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창 18:23-24)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창 18:26). 그러나 소돔 성에는 의인 열 명도 없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오십 의인 중에 오 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오 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사십오 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사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사십 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삼십 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이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이십 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십 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창 18:27-3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구원하셨다(롯의 아내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후에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다.(살전 5:9 참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벧후 2:9)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고 그분은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

특별한 두 무리

본문은 삽입구적인 장이다. 즉 7 장에는 두루마리의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소개되면서 계속되던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중단된다. 첫번째 소개되는 것은 144,000 명의 무리이다.

계시록 7:1-3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7:1)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만약 스모그(공기의 공해)를 다른 곳으로 빠지게 하는 바람이 없다면 나성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는가? 단 며칠이라도 약간의 바람이 불어야 호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아 얼마 동안 세상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7:2-3)

8 장에는 일곱 나팔 심판이 나온다. 그 때 요한은 일곱 천사를 보는데 모두 각기 나팔을 갖고 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땅에 심판이 일어난다. 7 장에서 요한이 본 땅의 사방을 잡고 있는 네 천사들은 8 장의 일곱 나팔 심판을 가져오는 그 일곱 천사 가운데 처음 네 천사인 것으로 보인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아”라는 구절로 인해 성경의 권위를 깎아 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 기자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당시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땅의 사방’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지 않았고 둥글다고 했다.(사 40:22)

몇 해 전 미국 해병대는 본국의 해병대가 ‘세계의 사방’을 누비고 있다고 굉장히 자랑을 했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말인가? 요한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지구에는 동서남북이 있다. 그러므로 ‘땅의 사방’이란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쓰이는 표현이다.

이 네 천사들은 땅에 심판을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다섯 번째 천사가 등장하여 네 천사들의 행동을 막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된다.

계시록 7:4-8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7:4)

많은 단체에서 자신들을 십사만 사천 명의 무리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일 내가 유대 민족이었더라도 그들 144,000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대환난 동안에 남아 있고 싶지 않다. 따라서 144,000 의 무리에 속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여러 단체들이 자신들이 바로 이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144,000 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이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930 년대에 그들은 144,000 명이 되었지만 오시리라 했던 주님은 오시지 않았기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거하게 될 새로운 무리를 형성했다. 이것은 하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땅에서 평화롭게 살면서 왕국 시대의 자녀들을 낳는 것이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의 제일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하늘 나라가 다 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세계 계획”(The World Program)의 허버트 암스트롱(Herbert W. Armstrong)은 그 조직이 144,000 명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 광야로 피하여야 할 때 당신에게 전보를 보내 준다고 한다. 그들은 대환난 때에 마지막까지 살아 남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영적으로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자.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7:4 의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이 영적이라면 ‘144,000’이라는 숫자도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인 숫자일 수도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시록 7:4 의 한 부분은 영적으로, 다른 한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은 왜 영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을 섞어 놓으셨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가?

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믿는다. 언젠가 144,000 명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내가 “당신이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된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이상한 선생에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오. 당신이 성경을 단순히 그냥 읽기만 했다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 것이오”라고 말하자 그는 “그렇지만 성경은 ‘저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저것’은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죠?”라고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이것은 그리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매우 명확하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다른 어떤 해석도 그것은 단지 해석일 뿐이다.

성경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불필요한 많은 혼란에 빠진다. 자기들이 144,000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다니엘의 칠십 ‘이레’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단 9:24-27). 예언된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전적으로 모든 예언의 개념을 혼란시켜 아무런 의미도 없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바는 대환난으로 알려져 있는 마지막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대환난은 다니엘이 예언한 70년 가운데 마지막 ‘이레’이며, ‘야곱의 환난의 때’로도 알려져 있다.(렘 30:7)

하나님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에 대비해서 인치셨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출 12:13-14). 하나님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인을 치셨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실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한 것이다.

에스겔 9 장도 백성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떡그릇을 찬 사람(천사)이 그 땅에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심판이 이르면 천사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남겨질 것이다. 인맞은 특별한 무리가 있다는 것이 계시록 7:4에 있는 상황과 똑같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이 의도하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 했는지 말해 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혼란이 온다. 허버트 암스트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노라 할 것이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무리는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하나님의 명백한 아들들’로 자처하는 무리들 역시 제 나름대로 해석하여 말할 것이다. 이처럼 모두가 다르게 말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시도가 혼란스러울 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협잡을 하는 듯한 이런 상황을 예견하신 것처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144,000의 무리를 말씀하실 때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열두 지파의 이름도 다 기록하셨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 된 자들이라고 했다(갈 3:7).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영적인 지파를 말하지 않았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지파로 분류하지 않는다. 열두 지파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실제적 후손에 이르게 된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영적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실제적 후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무리를 영적으로 보고 그 수를 헤아려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에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을 각각 12,000 명씩 부르고 계시다.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스블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7:5-8)

성경에서 “열두 지파”가 자주 언급된다는 점도 흥미롭다(12는 통치, 다스림을 나타내는 수임). 그런데 여기에서는 언급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지파가 있다.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 가운데 들지 않는다.

다른 두 지파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첨가되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즉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었다.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는 빠지고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계시록 7 장에서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다.

단과 에브라임 대신 레위와 요셉 지파가 열두 지파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면 그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신 29:18-21).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여로보암이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왕상 12:28)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인 맞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대환난의 모든 시련을 겪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지파의 인맞은 자들은 바람이 상하지 못한다. 계시록 9 장에 보면 무저갱에서 나온 마귀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즉 144,000 명을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다. 각 지파에서 12,000 명씩 하나님의 심판에 남겨지게 된다.

계시록 7 장에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에스겔서에 있는 대로 땅을 재분배하실 때는 가장 처음 분깃이 단 지파에게로 돌아간다(겔 48:1). 단 지파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인치심을 받지 못했지만 가장 먼저 땅을 분깃으로 받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많이 저버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계시록 7:9-1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7:9)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아마도 계시록 6 장에 다섯 번째 인에 나오는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일 것이다. 흰옷을 입은 그들이 울면서 “대주재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하자 ‘기다리라’는 말씀이 주어졌다. 계시록 7 장에서는 6 장에서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던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들의 수가 완전히 채워진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그들 무리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 “큰 무리”가 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물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7:13)

이 질문은 하늘 나라에 있는 이들이 요한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 무리가 구약성경의 인물들이었다면 요한은 그들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말이다. 이 무리가 교회였다면 요한은 하늘 나라에 있는 그들을 쉽게 알아보았을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실 것이라는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 비밀은 사도 요한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요한은 밧모 섬에서 계시를 받았지만 에베소에 있는 이방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요한은 각 나라에서 나온,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 장로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 준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7:14)

그들은 대환난 때에 순교한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들의 증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큰 무리’가 하늘 나라에 왔지만 교회와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7:15)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반면에 교회는 섬기는 자로 하늘 나라에 있지 않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한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다스릴 것이다.

이 큰 무리는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한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7:10-11)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요한이 처음으로 하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한 계시록 4 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스랍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돌릴 때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졌다. 이 큰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받은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자 네 생물(스랍)과 이십사 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7:12)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에 주목하라. 대환난을 오래 겪으면서 그들은 끔찍한 배고픔과 갈증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고통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로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7:16-17)

계시록 16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세를 해에게 주신다.

제양

이제 일곱 번째 인에 이르렀다. 일곱 번째 인에서는 일곱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나팔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나온다. 이 모든 것이 일곱 번째 인에 있다.

계시록 8:1-2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8:1)

고요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많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리들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최상이다. 고요함,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의 현상으로서 폭풍 전야의 두려움이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8:2)

어떤 사람들은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천사장이라고도 한다. 성경에는 미가엘만이 천사장으로 언급되어 있다(유 9 절). 미가엘은 주요한 천사 가운데 하나이다. 가브리엘은 미가엘을 “군장 중의 하나”(단 10:13)라고 불렀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다른 한 천사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라고 한 천사이다.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천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눅 1:18-19)고 대답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두 천사이다.

계시록 8:3-6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우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8:3-6)

이것은 하늘 나라의 광경이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진 향이 담긴 금향로가 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계시록에 있는 비유들이 매우 친숙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다. 구약 시대에 금향로는 제사장이 성막으로 매일 들어가면서 사용했었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숯을 조금 떼서 이 작은 금향로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향을 조금 첨가한다. 향로의 연기가 피어오르면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 제단 앞에서 이 금향로를 흔든다. 피어오르는 향로의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땅의 성막 제도와 관련된 이런 제사장의 행동들은 하늘 나라의 일에 대한 모형, 또는 본보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계시록 8:2-6에서는 이 땅에 있었던 성막의 모형이 되었던 하늘의 광경이 나와 있는 것이다. 천사가 제단에서 숯을 받아 그것을 성도들의 기도인 향과 합하고 있다.

계시록 8:7-11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8:7)

첫째 나팔 심판은 땅과 땅에 있는 식물에 내려진다. 현재에도 식량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나팔 심판으로 인해서 식량 공급원인 땅의 삼분의 일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풀은 전멸되고 모든 수목의 삼분의 일도 전멸된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나무와 푸른 풀들은 타서 사라진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더라(8:8-9)

바다로 떨어지는 불의 큰 산이란 공해를 말하는 것 같다. 지구의 오염으로 나무들이 죽어가는데,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다. 대기중에 있는 핵폭발로 생긴 스트론튬 90은 식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생명을 위협한다. 그래서 핵무기의 대기중 시험 검사가 중단된 것이다. 만일 핵전쟁이 발발하면 부산물인 방사선 물질이 농작물과 땅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 바다도 오염되어 삼분의 일 가량의 생물이 죽고, 삼분의 일 가량의 배가 파괴될 것이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썩이라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8:10-11)

셋째 나팔 심판은 깨끗한 물 공급원에 내려진다. 강들과 깨끗한 물샘의 삼분의 일이 파괴된다. 깨끗한 물 공급원의 삼분의 일이 파괴되고 난 후 있을 갈증을 상상해보라.

계시록 8:12-13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칙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도 하더라(8:12-13)

처음 네 천사들이 나팔을 불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 하늘을 날아다니며 큰 소리로 말한다. “화, 화, 화”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거이다.(마 24:29)

네 번째 천사가 해와 달을 어둡게 만들어 해와 달의 삼분의 일만이 빛이 난다. 이것은 처음 세 가지 나팔 재앙의 결과로서 대기 중에 일어날 일인 것 같다.

남태평양에 있는 화산섬(Krakatua)이 분출했을 때 그 섬은 완전히 폭발되었다. 섬이 폭발하자 바닷물은 분화구 속으로 마구 밀려들어갔다. 실제로 그 때의 폭발 소리는 2,000 마일(3,200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렸다. 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최소한 1 입방마일(1600 입방미터)의 물질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린 이 거대한 폭발로 인해서 그 후 2년 동안 지구의 일몰은 먼지로 뿌옇게 되었었다.

땅과 바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내려진 이 재앙들은 대기 중에도 내려져서 해와 달을 어둡게 만들고 달을 핏빛으로 물들일 것이다.

화, 재난, 고통

계시록 9:1

무저갱이 언급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9:1)

무저갱이란 문자적으로 말하면 갯도, 즉 땅속으로 뚫은 길을 말한다. 지구 표면 어딘가에 갯도가 있고 이곳으로 들어가면 음부가 있는 땅의 중심부로 내려가게 되는데, 음부는 성경에서 종종 ‘지옥’으로도 표현되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 지옥은 땅의 중심부에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마 12:38-40). 또 사도 바울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엡 4:8-10)고 했다.

구약 시대에는 죽으면 음부로 갔다. 구약성경에서 음부를 ‘무덤, 지옥’으로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곳은 죽은 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곳으로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에 대해 언급하셨다(눅 16:19-31).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고 있는 부자의 때문에 한 거지가 있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헌대를 핥았다. 그 거지는 죽어 천사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음부에 들어갔다. 부자는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편히 있는 거지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홀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부자는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청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죽어서 무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신이 음부에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 나사로 역시 의식이 있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편히 쉬고 있었다.

음부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것이다(눅 23:4). 그들은 음부에 내려간 것이다.

사도행전 2 장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한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려고 큰 무리가 모였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무리가 묻자, 베드로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면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행 2:14-36)

베드로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어 음부에 내려가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는 것이다(벧전 3:19). 바울은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고 했다(엡 4:8). 그리스도께서 음부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충성된 자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셨으므로 그 자리가 비어 있다. 아브라함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히 11:39-40). 세상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죄를 덮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신다고 했다(사 61:1). 죽음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옥 문을 열어 주신다. 성경은 예수를 가리켜 ‘사망이 가두지 못할 분’이라고 말한다(롬 6:9). 그분은 사망이라는 감옥의 문빋장을 부숴뜨리셨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다.

무저갱은 마귀나 악령을 감금하는 장소이다. 거라사인의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은 예수님께 세상에 계속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저희더러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눅 8:26 -31). 귀신들은 그리스도의 천 년 왕국 통치 기간인 천 년 동안 자기들이 무저갱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계 17:8). 전에 한 번 이 세상에 있었던 짐승이 갇혀 있던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 사단은 큰 쇠사슬에 묶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무저갱에 던져진다.(계 20:1-3)

계시록 9:2-4

다섯 번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요한은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게 된다. ‘별’은 천사를 의미하므로 땅에 떨어진 별은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9:2)

그 구멍이란 연기를 내뿜어 해를 가리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화산을 말하는 것 같다.

황충이 땅 위에 나온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9:3-4)

다시 한 번 144,000 명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들은 앞에서 땅에 고통을 가져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망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로부터 다치지 않도록 인을 받았었다(7:3). 그 144,000 명은 땅에 놓여진 황충의 모양을 한 사신이 가져올 고통을 면하게 된다.

해리슨 포먼(Harrison Forman)이 쓴 「금지된 티벳을 지나서」(Through Forbidden Tibet)라는 흥미로운 책이 있다. 그 책에 “나는 지옥의 왕을 보았다”라는 장이 있다. 저자는 티벳에서 행해지는 종교 연례 행사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티벳에서는 매년 그 나라의 종교인들이 모여서 기근의 신, 홍수의 신 등 여러 종류의 신들을 불러낸다. 제사하는 자들은, 이 신들이 다음해에 자기들의 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영적인 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그런데 귀신이 도망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홍수의 신이 도망을 치면 그 땅에는 내년에 홍수가 난다. 일주일 동안 이러한 의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지옥의 왕을 불러낸다.

포맨은 자기가 최면 상태에 빠져들지 않고 최면에 걸리지 않도록 애썼다고 기록한다. 그가 본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육체로 나타난 귀신들을 보고 그 귀신들과 그것들의 다양한 형태들을 기록하였는데, 그가 쓴 내용을 보면 계시록에 있는 귀신들과 매우 유사하다.

땅에 떨어진 별,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이 무저갱을 열자 거기에서 연기가 나고,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악령들이 땅 위로 나온다. 그들의 권세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데, 곧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세이다.

144,000 명의 사람들은 이로부터 보호받는다. 이것은 황충이 지능이 있음을 나타낸다. 즉 황충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4,000 명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다.

계시록 9:5-6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9:5-6)

성경에는 죽음이 인격화되어 있다.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다. 문학 작품에서도 “죽음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는 식으로 죽음을 인격화하여 표현한다. 계시록 20 장에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울 것이라고 했다(14 절). 사망과 음부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내어줄 것이다. 사망도 음부도 그 지배를 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다섯 달 동안에는 죽음이 없다. 죽을 때가 와도 죽을 수 없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는 한 부인이 밤에 내게 전화를 했다. “목사님, 빨리 와 주세요.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나고 묻자 그 부인은 “제 아들이 자살을 한 것 같아요. 무서워서 들여다보지도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는 목사님을 좋아하거든요”라고 했다. 그 부인의 아들은 알콜 문제로 나와 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 날 아들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자 그 어머니는 “애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술을 마셔서 이 에미의 마음을 상하게 할거니?”라고 했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 더 이상 저 때문에 걱정하실 일 없을 거예요”라고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총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 부인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방에 들어가보니 그 아들은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의 오른쪽 관자놀이 쪽에 45구경짜리 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고, 그의 머리는 박살이 났다. 나는 두개골 조각과 머리카락들을 천장에서 간신히 떼어내어 석고판에 넣었다. 그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의 뇌를 쓰레받기로 모아서 화장실 변기에 버려야 했다. 그 이후로 나는 거의 일주일의 잠을 자지 못했다. 너무나 끔찍스러운 경험이었다. 그 때 난 생각했다. ‘이렇게 해도 죽음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죽음이란 축복일 수 있다. 죽음이란 우리에게 갑작스레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아니다.

큰 고문의 시대가 오고 있다. 마귀들이 전갈이 주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줄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죽기를 구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몸을 떠나지 않고 정신적, 육신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계시록 9:7-12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먼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홍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9:7-11)

“아바돈,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은 모두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여기 나오는 이 귀신들의 임금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9:12)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예수님의 공중 재림시 들림을 받지 못한다면, 깊은 산속으로 가면 된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작은 시내를 찾아서 사냥도 하고 야생 열매를 따먹으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숨어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잡을 수 없고 나를 인치지도 못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지배를 피할 수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귀신으로부터는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땅에 사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가지 피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7).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계시록 9:13-15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9:13)

장막 안에는 네 뿔이 있는 제단이 있었다. 이것은 하늘의 제단과 비슷한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이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9:14)

유브라데 강은 세상의 거짓된 종교제도가 나온 고대 바벨론 왕국에 흐르던 강이다. 대부분의 거짓된 종교 의식들은 바벨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또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 있던 강 가운데 하나였다. 인간의 첫 거주지는 유브라데 골짜기였을 것이다. 이 강에 횡포하고 무서운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세상을 파멸시킬 것이다.

자기들의 원래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기록한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있다(유 6 절; 벧후 2:4). 그 천사들은 심판날을 기다리며 흑암의 결박에 매여 있다. 하나님께서는 홍포한 그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심판날까지 결박하신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 주심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헤립 왕이 이끄는 앗수르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한 사자를 앗수르 진중에 보내어 하룻밤에 앗수르 군사 185,000 명을 치셨다.(사 37:36)

계시록 9 장에는 매우 포악한 네 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들로부터 이 세상을 보호해 오셨다. 그러나 이제 사슬에 묶여 있던 천사들이 풀려날 것이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9:15)

이 천사들은 한번에 지구 인구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한다. 네 번째 인으로 세계 인구 50억 가운데 삼분의 일이 죽었다면 지구상에는 38억의 인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여기에서 또 삼분의 일(12억)이 죽게 될 것이고, 또 해일, 지진, 운석 같은 지각 변동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세계 인구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둘 가운데 한 사람만 살아 남게 되는데, 구약성경에는 셋 가운데 하나만 살아 남으리라고 했다.(슥 13:9)

계시록 9:16-21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홍감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9:16-19)

2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것이 최근까지도 얼마나 불가능한 말이었는지 알고 있는가? 세상의 어떤 나라 군대가, 또는 어떤 연합군이 2억이 될 수 있겠는가? 지구상의 인구가 10억이 된 것이 1860년의 일이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을 다 모은다고 해도 2억 군대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2억의 군대를 소집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데, 흥미로운 숫자 아닌가? 1억 5천만이나 1억 7천 5백만, 또는 2억 1백만이라고 하지 않고 하필이면 왜 2억이라고 했겠는가? 타임(Time)지도 중국이 2억의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단언한 기사를 실었었다(Time, May 21, 1965). 요한은 이런 대규모 군대를 보고 있다.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9:20)

나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사단을 섬기는 문제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의식적으로 마귀를 섬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사단을 섬기고 있다. 실제로 우상 숭배는 늘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 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회개치 않는다.

시편에서 다윗이 ‘우상들은 다 헛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다윗은 우상을 가리켜 사람들이 나무나 은으로 새긴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다. 또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그 우상과 똑같이 되고 만다.(시 135:15-18)

인간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닮는다. 이것이 삶의 기본 철학이다. 당신의 신은 누구인가? 당신이 무엇을 섬기든 그것을 닮게 될 것이다. 우둔한 우상을 섬기면 우둔하게 된다. 당신의 신이 거짓되다면 당신도 거짓될 것이다. 무감각하고 무정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도 무감각하고 무정한 사람이 된다. 당신이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닮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주와 축복은 섬기는 신이 누구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하나님과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일 3:2).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당신이 삶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이상과 철학과 야망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9:21)

‘복술’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파르마케이아’(pharmakeia)인데, 이 단어로부터 ‘pharmacy(조제술, 약국)’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것은 환각 상태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약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복술을 회개하지 않았고 음행과 도적질도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 도처에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할 것 같지만 실은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박해져서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그를 치십시오. 그러면 그가 회개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고 했다(롬 2:4).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일이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한지, 그에 비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얼마나 큰지를 알면 회개하게 된다. “오 하나님, 어찌 그리 좋은지요. 저는 너무나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다.

왕의 예시

계시록 10:1-4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10:1)

이 묘사로 보아 ‘**힘센 다른 천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천사**’란 글자 그대로 ‘사자’를 의미한다. 어떤 계층의 존재인지를 나타낼 필요는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다. 따라서 본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계시록 1 장에 “그의 얼굴은 해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계 1:15-16)고 했으며, 10:1 에는 구름을 입었다고 했다.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계 1:7). 또 마태복음 24 장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고 하셨다. 그분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계시록 4 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도 무지개가 있었음).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히 9, 10 장)고 하셨다. 그러므로 재림하실 때 그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10:2-3)

봉인되어 있던 두루마리가 펴 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시 찾을 권세를 손에 쥐고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는 큰소리를 발하실 것이다. 그것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의 울음 소리 같을 것이다. 그것은 승리와 환희의 나팔 소리이다.

이사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예언하면서 크게 소리를 치실 것을 말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사 42:13). 예레미야도 이와 똑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렘 25:30). 호세아 역시 이와 같은 일을 말해 준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호 11:10). 마지막으로 요엘도 같은 일에 대해 말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와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욘 3:16). 그리스도께서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재림하심은 두세 사람(또는 그 이상)의 증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한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10:4)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 우렛소리를 들으면 요한이 인봉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의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추측하려고 하는 시도도 어리석은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한이 일곱 우레를 발한 것을 기록하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것은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계시는 완전한 계시가 아니다.

계시록 10:5-17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10:5-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수하는 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재림을 지체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하실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라(10:7)

하나님께서서는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왕국 시대가 실현되리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세워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나팔 소리에 대하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11:5)라고 한 것은 의미가 깊다. 세상의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즉 한쪽 발은 바다를, 한쪽 발은 땅을 밟으시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계시록 10:8-11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10:8-11)

요한은 힘센 천사에게 가서 그가 가진 작은 책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천사는 “그것을 먹어버리라”고 말했다. 책을 먹는다는 것은 책을 읽는다는 것이고, 책을 읽으면 그 책은 자기의 한 부분이 된다. 책을 읽을 때 그것이 약속하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삭일 때, 즉 그 약속이 실현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쓰고 생각하기에도 힘이 든다. 요한은 책이 입에는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음을 알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앞서서 계시록의 일곱 인봉이 떼어질 때 세상이 겪어야 하는 비극적 사건들과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다.

천사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요한에게 말했다.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예언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천사가 말한 것은 요한이 두 증인 가운데 하나로 올 것이며, 환난 시기에 다시 예언할 것을 말한다고 믿고 있다.(11 장)

특별한 두 증인

계시록 11:1-2

성전과 관련해서 요한은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자의 손에서 취한 책의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자 일곱 나팔 심판이 일어났다.

계시록 11 장의 서두는 7 장과 10 장에 있었던 것처럼 삼입적인 구절이다. 즉,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잠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증인을 보내시는 7년 환난 시기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11:1-2)

요한은 약 10 피트 길이(약 3 미터)의 갈대를 받고, 성전을 척량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이 일은 대환난의 처음 반 시기 동안에 일어날 것인데, 교회가 들림받은 후 마지막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시며,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지만, 7년 대환난 시기 도중에 그 언약을 깨뜨린다(단 9:27). 나는 적그리스도가 이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오마르 회교 사원’(Mosque of Omar)이라고 불리는 건물 아래에서 고고학 발굴을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점점 확실시되는 것은 오마르 회교 사원이 헤롯 성전의 제사 드리는 마당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곳은 성소가 아니라 희생 제물을 드리는 마당이었다. 많은 유대 학자들은 오마르 회교 사원의 북쪽 322 피트(약 97 미터) 떨어진 위치가 솔로몬과 헤롯 성전의 지성소였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결코 그 성전 지역 위로 걸어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의 지성소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전 지역을 지나다가 부지중에 지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 장소가 지성소였다면 솔로몬 성전의 바깥 마당이 현재 서 있는 오마르 회교 사원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11:12)이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유대인들이 지성소의 위치를 발견해서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장소로 택한다면, 회교 사원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오마르의 회교 사원은 회교도들에게는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만일 유대교인들이 자기들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사원을 파괴한다면,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 성전(Holy War)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교상으로도 회교도 지역 내에 성전을 짓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유대인들은 흠여지게 되어 있었다. 예수님도 그들이 흠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눅 21:24), 다니엘과(단 9:20-27), 모세는 물론(신 32:26), 구약의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흠여질 것을 예언했다. 그러나 그 예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날에 함께 모여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되찾은 1967년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혔다. 계시록 11:2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한 번 예루살렘에 대한 통치권을 잃을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마흔두 달 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일어나야 할 사건은 먼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되찾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선지자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계시록 11:3-5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대환난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두 증인이 있고, 또 14 장에서는 온 세상에 주님의 증인들로 천사들을 이용하시기도 한다.

이 두 증인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증인들이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메시아였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속자로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증거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해하려고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11:3)

베옷은 선지자들의 의복으로서 종종 나라의 백성들이 범죄함을 애통하는 표로 입었다. 두 증인들은 3년 반(마흔두 달 또는 1,260 일) 동안 범죄한 백성을 비탄히 여기는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성경의 예언 연수는 한 해가 360 일이라는 바벨론 역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심으로써 이 두 증인은 3년 반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쯏대니(11:4)

스가라는 흥미로운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쯏대 옆으로 자라나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었다. 감람나무의 가지는 쯏대로 뻗어 있었고, 감람유가 나무에서 흘러나와 쯏대에 채워져서 그 쯏대에 영영히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이었다.

제사장은 성전의 쯏대를 잘 살피고 날마다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잘라 주어야 했다. 스가라는 이렇게 매일 해야 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감람유가 나무에서 직접 쯏대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훌륭한 해결책을 마음속에 그렸다.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1-6). 이 환상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두 쯏대는 두 증인을 가리킨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큰 권세를 위임받는 것을 가리킨다.

이제 그들이 권세를 갖게 된 후의 결과가 나타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11:5)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할 당시, 아하시야 왕은 오십 부장을 보내어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을 때 오십부장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오십 인을 사를지로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오십 부장과 그의 오십 인을 불살랐다.

아하시야 왕은 다시 오십 인과 오십부장 보냈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세 번째 오십 부장과 오십 인이 보내졌을 때 오십 부장은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간구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해야 할 가장이나 당신을 데려오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 부디 나와 함께 거주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와 함께 갔다(왕하 1:15).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불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도성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같이 대하는 것을 보고 번갯불을 내리려 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자신이 어떤 영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을 멸망케 함이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함이니라”(눅 9:54-56)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절한 세상은 이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는 끝났다. 대환난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신다.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해하려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멸될 것이다.

계시록 11:6-7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도다(11:6)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아합 왕 앞에 나아가 자기가 명할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게 하셨다(왕상 17:1). 이와 같은 권세를 두 증인들도 가지고 있었다. 즉 예언한 기간에는 비가 없을 것이다.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 것이다. 게다가 이 두 증인에게는 남아 있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

‘**두 증인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추측만 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라고 믿는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을 보면 모세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보다 더 큰 증인이 어디 있겠는가? 모세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구했다(요 9:28). 하나님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신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기 때문이다.(신 18:15)

그리고 나머지 한 증인이 엘리야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말라기에는 하나님께서 크고 현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말 4:5).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예표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과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마 17:11).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는 말라기의 예언을 다시 반복하신 것이다.

두 증인 중 한 사람이 엘리야인 것은 확실하다. 다른 한 증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모세이거나 에녹이거나 아니면 스투바벨일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스투바벨을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관계로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다. 또는 세례 요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 추측일 뿐이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11:7)

이 두 증인은 증거를 마칠 때까지 제거될 수 없다.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하신 손이 그들의 생명 위에 있기 때문이다.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다. 계시록 17 장에는 이 짐승을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묘사하고 있다(8 절). 적그리스도인 그 짐승은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칠 때까지는 두 증인을 해할 수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증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신다.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칠 즈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더 좋은 일을 준비하신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이길 권세를 갖는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

계시록 11:8-14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이니라(11:8)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성읍인 예루살렘에 대한 매우 끔찍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눈이 언제나 예루살렘 위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대하 7:16). 그러나 예루살렘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애굽, 육체, 소돔’이라고 부르신다.

두 예언자의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 놓일 것이다. 사람들은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낼 수 없고, 그들의 시체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리에 사흘 동안 방치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11:9)

끔찍할 정도로 비인간적이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그 시체를 보리라고 하신 말씀이 흥미롭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제아무리 빨리 그 시체를 그려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전세계가 그 시체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서는 실현 가능성 있는 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집에 앉아서 두 증인의 시체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시체에 침을 뱉고 시체를 절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텔레비전을 통해 전세계에 방송될 것이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11:10)

사람들은 도무지 진리에 귀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두 사람은 서서 진리를 말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두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잠잠해지자 기뻐한다. 그래서 그들이 죽자 크리스마스 때처럼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며 큰 축제를 베푼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11:11-12)

당신이 이 일을 중계하는 방송국의 카메라 기자라고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두 시체에 카메라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시체들이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11:13-14)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현재 예루살렘에는 방대한 건설 계획이 추진중이다. 그런데 이 도시의 십분의 일이 지진으로 파괴된다면 그 때의 참사와 황폐함이 어떻겠는가?

계시록 11:15

이제 다시 나팔 재앙으로 돌아간다.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을 고린도전서에서 교회가 들려올라가는 소식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과 일치시켜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고전 15:52).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갖다 맞추려는 시도로서,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할 만한 성경적 근거는 없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11:15)

그 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온 교회 시대를 통틀어 모든 성도들이 기다려 온 바로 그 날인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히 11:13)라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히 11:10). 그들은 하늘 나라를 고대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날을 인내로 기다렸다.(히 10:36-37)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고대하는 사건들이 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이 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시간이 왜 그리도 가지 않는지,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시간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가버리는지! 결혼을 위한 기대와 모든 준비의 시간들은 15분 만에 끝나버린다.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날에는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하늘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라는 큰 음성이 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세상의 지배자는 사단이다.

아담의 죄값으로 모든 권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분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이 세상을 대속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가는 그분이 값 주고 사신 것들을 주님의 것이라 주장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는 구속되었다. 그리고 피로 값 주고 사신 성도들이 완전히 구속될 때까지 성령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며 예수께서는 우리, 곧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치셨다. 성령의 인이란 물건을 살 때 미리 보증금을 내어 놓는 것과 같다. 성령께서 앞으로 올 세대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계시록 11:16-17

선포될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11:16)

이십사 장로들은 늘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11:17)

하나님께는 언제나 권세와 권능이 있다. 예수께서 속죄의 값을 치르신 후,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었으나 지금까지 거의 2,000 년(바벨론 역을 따르면)을 기다리셨다.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한다. 기다리라. 마치 농부가 추수 때까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듯이(약 5:7).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께 대해 인내심을 갖지 못한다. 세상의 문제들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거나 실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은 잃은 자에게 구원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벧후 3:9)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믿게 될 자들에게 구원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창 6:3)라고 말씀하셨듯이, 은혜가 끝나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왕국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다.

계시록 11:18-19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11:18)

시편에서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시 2:1)라고 했다. 이방들이 분노한다.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은 그 시대의 지배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지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다. 헤롯은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박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렀다. 그 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마 2:1-4)라고 물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다. 누군가가 자기를 밀어낼 것을 염려한 헤롯은 박사들에게 “가서 그 아이를 찾으면 내게 알려 주어 나도 그를 경배하게 하라”(마 2:8)고 말했다. 사실 헤롯은 예수님께 경배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위협을 느낀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잃을 것을 두려워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구나! 저들이 예수를 메시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막 11:18; 15:10).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동요케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방들은 다시 분노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으나 재림시에 예수님은 철 막대기를 가지고 다스리러 오신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11:18-19)

다니엘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오리라고 예언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단 12:2). 계시록 20 장에는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지는 천 년 왕국이 온다고 했다.

사람과 장소

계시록 12:1-2

12 장은 다양한 등장 인물들로 시작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12:1-2)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된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로써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다. 한번은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에 곡식을 묶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다. 그가 형들에게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하자 형들은 화를 내며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영똥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했다.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이번에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저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리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꾸짖었다. 이 때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를 가리키며 열한 별은 요셉의 열한 형제를 가리킨다(창 37:5-10 참조). 이 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그에게 움으로써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열한 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계시록 12:3-4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어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12:3-4)

계시록 12 장의 두 번째 등장 인물은 머리가 일곱 개, 뿔이 열 개 달린 ‘큰 붉은 용’이다. 물론 이 용은 사단이다. 용은 항상 사단의 상징이 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행진을 할 때 종이로 만든 거대한 조형물을 바닥에 깔아놓는데, 이것이 거리를 온통 휘감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용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따른 저주로서, 뱀은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되었다(창 3:14). 그런데 중국에서도 용은 사단의 상징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그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아마도 사단이 타락하면서 천사의 삼분의 일을 끌어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에 사단은 하나님의 동산에 거했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었으며, 매우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하며, 불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의 모든 길에 완전하였다(겔 28:11-15). 사단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하늘에서, 그리고 그의 지위와 권력에서 내어쫓으셨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하늘에 가까이 접근했다.

그 예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으셨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단이 대답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욥 1:6-11)고 하시자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계시록 12 장에는 사단을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했다.(10 절)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참소한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결점들을 재빠르게 알아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서 멀어지도록 한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들려고 우리의 약함을 지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은혜를 입을 만하지 못한가를 말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우리가 쓸모없을지라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처음 지위를 고수하지 못한 천사들이 있었다(유 6 절). 예수께서 거라사인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을 때, 그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자 그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막 5:9)라고 대답했다. 많은 악령들, 귀신, 타락한 천사, 정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사단에 동조하는 어두움과 악의 세력들이 많이 있다.

계시록 12:5-6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12:5-6)

그러나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문에 그를 가리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진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심을 안다.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도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시 2:8-9)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예수님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2:26-27) 약속하신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좌에 앉게 되리라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아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사역일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속한 일이기도 하다. 이 사실로 인해 여자를 교회로, 그리고 아이를 들림받을 이기는 성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같은 주장에는 실제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성경은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라고 했다(12:2).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이다. 그런데 처녀인 교회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 아이가 빼어난 성도로서 그들만 들림받는다라는 의견에도 반대한다. 이러한 견해는 은혜의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세번째 견해는 아이를 대환난 때에 있다가 보좌에 들림받아 하늘 나라에 있게 될 144,000 명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피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환난 기간의 마지막 반인 3년 반 동안 그들을 양육하신다.

예수께서 유대인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마 24:3, 15-17).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대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단 9:27)고 하셨다.

이스라엘이 도망하는 이 멸망의 특정한 때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이며(단 9:27), 이 말씀은 계시록 12 장에도 언급되어 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에는 그를 숭배하도록 세상을 이끄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 그리고 재건된 성전의 지성소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다. 이 신성 모독적인 우상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하나님의 진을 다시 한 번 더럽힐 것인데(주전 168 년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한 전형이다.

적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이 신성모독적 물건을 세운 후부터 1,290 일이 지나면, 예수께서 큰 영광과 권세로 그분의 교회와 함께 다시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단 12:11)

계시록 12:7-17

재건된 성전에서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행위가 벌어질 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12:7)

처음 처소를 지키지 못하고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한 사자들이 사단의 편에 서서 미가엘과 하나님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있다.

[사단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12:8-9)

관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사단을 두루 다니도록 허용하셨지만, 마침내 사단이 내어쫓기는 날이 온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날에 요한이 말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 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12:10-11)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보혈로써 사단을 이겼다. 오늘날 사단과 싸워 이기는 우리의 방법도 바로 이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의 증거하는 말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완전한 사랑의 헌신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12:12)

사단이 하늘에서 완전히 내어쫓기게 되는 그 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즐거워하라. 이제 밤낮으로 참소하던 사단은 가고 없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왔음이라(12:12)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마지막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 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12:13-14)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그리고 ‘반 때’는 반 년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자는 삼 년 반 동안 ‘뱀의 낫을 피하여’ 보호받는 것이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 [물은 군대를 상징한다] 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12:15-17)

마지막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도망하여 있을 광야의 이 장소는 고대의 암석 도시인 페트라임이 분명하다. 페트라는 사해 남쪽, 요르단의 하르바 계곡에 위치한 아주 견고한 요새이다.

이사야서에는 셀라, 곧 페트라가 유대인들이 쫓겨날 때 그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요르단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기며 압제가 지나갈 때까지 그들의 피할 곳이 되라고 명하셨다.(사 16:1-4)

적그리스도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한다. 모두가 전쟁에 싫증이 났다. 전쟁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전쟁은 그 나라의 경제와 국력을 약화시킨다. 전쟁이 분쟁을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자조차 죄스러운 일이라고 느낀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앉아서 서로 이성적으로 의사를 소통하고 분쟁과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성적이고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을 살상할 목적으로 거대한 무기 공장을 건설하는 데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할당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평화를 갈망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한다. 그런데 왜 싸우는가? 전쟁은 왜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마침내 전쟁이 종식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러한 평화를 발견하기에 앞서 겪어야 할 끔찍한 전쟁은 두 번 더 있다. 본문에는 다음의 마지막 전쟁에 대한 계획이 묘사되고 있다. 나는 언제라도 그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도화선에 이미 불이 붙었다. 폭발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없다.

에스겔서 38-39 장에 있는 대로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전쟁에 앞선 전쟁이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패배시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신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의 5/6 를 멸하신다. 이렇게 되면 열 나라로 된 동맹 연방 국가가 서방 유럽에서 세력을 잡고 인근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 때 한 사람이 평화에 대한 환상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온다. 그는 여러 민족들과 백성들을 융합시키는 마술사와 같다. 그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수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막강한 경제 블럭과 금융체제를 형성할 것이다. 온 세계가 이 사람을 알고 싶어하고 그와 그의 계획과 정책들을 따른다. 바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다.

기꺼이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여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집트도 그가 대항하는 나라 중 하나일 것이다. 그가 이집트에 대항하면 중국과 동부 국가(일본, 인도)들은 군대를 보내어 유럽 대륙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땅에까지 오게 된다. 유브라테 강물은 말라 동방의 군주들이 갈 길을 예비한다(문자 그대로는 “해돋는 곳의 왕들”임, 16:12). 그들은 북쪽의 러시아 왕과 연합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을 배치시키고 그들을 무장시켜 이 유럽 민족 연합에 대항할 것이다. 이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계시록 13:1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13:1)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는 부활된 로마 제국이라 할 있는 공동시장의 열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다. 짐승에 대한 설명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철과 진흙으로 된 열 개의 발가락을 가진 큰 신상을 생각나게 한다.(단 2 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는 놋이고 종아리는 철이며,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우상을 보았다. 발가락은 열마는 철이고 열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자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느부갓네살 왕은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꾸 꿈의 내용을 기억할 수 없었고, 그 꿈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번민에 빠진 그는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자기가 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박수와 술객들은 모두 발뺌을 하면서 “저희가 그 꿈을 알지 못하면 그 해석도 할 수가 없나이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내가 기억할 수 없도다. 너희가 가짜가 아니라면 내가 꾸 꿈의 내용을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대답했다.

결국 그들은 왕에게 대답을 하지 못했고 왕은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진정하시라고 전해라. 내가 가서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말하리라”고 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온 청년 중 하나인 다니엘이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겠다는 소식을 받았다. 한편 다니엘은 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우리는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 주시고 해석도 해주셨다.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여, 왕께서는 꿈에 이 세상 나라들을 보셨나이다”라고 말했다. 느부갓네살왕은 이방 나라에서 일어날 일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은 왕이 꾸 꿈의 내용을 묘사해 주었다.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산에서 뜨인 돌에 맞아 파괴되고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은 금으로 된 머리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계 제국들을 주셨고, 당신은 그들을 다스리나이다. 그러나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제국에게 망하리니 이는 곧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니이다. 그러나 그 나라도 헬라 제국에 망하리니 이는 놋으로 된 배이며, 이 나라는 또한 로마 제국에 망하리니 이는 철로 된 종아리니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계를 다스릴 나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철과 진흙으로 된 열 발가락이다. 옛 로마 제국과 관계있는 열 개의 국가 연합 또는 그 우상의 발에는 철이 섞여 있었으므로, 적어도 로마 제국과 관련된 많은 나라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가 세계의 지배국으로 떠오를 것이다.

나는 유럽 공동 시장의 나라들이 이 열 개의 국가 연합의 전조라고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수 천 년 전에 말씀하신 사건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이 10 개국 연방에서 아주 막강한 지도자가 부상할 것이다. 그는 사단의 권세를 받아, 문제 많은 세상에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속일 것이다. 그러나 이 10 개국 연방은 산에서 뜨인,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에 의해 종말을 맞게 된다. 이 돌은 10 개국 연방의 발을 쳐서 무너뜨린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느부갓네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이상을 보았던 것이다. 다니엘 2:44 에는 “이 열왕의 고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방의 세력은 모두 끝난다. 예수님은 이 땅을 가득 채울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 이 때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때이다. 황금 시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계시록 13:2-4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13:2)

사단은 예수께 자기에겐 절하고 경배하면 자신의 왕위를 주겠다고 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 4:9)

본문에 보면 사단이 세상 나라들을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사단은 여전히 세상의 군주요 이 시대의 신이다. 그는 세상을 자기 지배 아래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된다.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단에게 권한이 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13:3-4)

적그리스도는 오른쪽 눈이 멀고 팔이 마르는 것으로 보이는 암살 계획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슥 11:17). 그러나 거의 죽게 된 것처럼 보여도 그는 다시 소생한다. 그의 힘을 볼 때, 온 세상이 기이히 여기며 따르게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누가 이 사람과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인간(superman)이 된다.

그 때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할 것인데, 이것은 사단 숭배이다.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사단을 경배하고 있는지를 알면 놀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다.

계시록 13:5-1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 [이스라엘] 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13:5-7)

이 본문 말씀으로 교회가 대환난 기간 중에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의 이론에 따른 “초월 성도”(super saint) 개념에 상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마태복음 16:18 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에 대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과도 상반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 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 [세상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이끄는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13:8-11)

이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 오게 하고 [두 증인의 사역을 흉내 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13:12-14)

그 거짓 선지자는 세상으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밋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13:15)

여기서 생기를 주는 권세란, 정보를 받고 어떤 것들을 말하거나 선포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하는 것 같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일을 성취할 만한 컴퓨터 사회에 있다.

계시록 13:16-18

짐승의 수는 666 이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이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13:16-18)

나는 666 이라는 상표가 붙은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일본산 셔츠에서 떴 666 상표가 찍힌 작은 꼬리표도 있고, 큰 글씨로 666 이 새겨진 서독제 큰 비료 봉지도 있다. 사람들은 왜 그 숫자, 상표를 택할까?

더욱 흥미 있는 것은 숫자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모든 금융체제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 수가 없이는 아무도 매매할 수 없다.

실제로 은행가들은 화폐를 없애고 완전히 컴퓨터로 자동화된 금융시스템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몇 년 전 《The Los Angeles Times》에는 이런 광고가 실렸었다. “태초에 돈이 있었으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러나 지금은 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광고에는 수표를 은행의 계정에 올리는 방법과 계산서를 보내는 방법이 나와 있었다. 은행은 모든 계산서를 맡아서 처리한다. 그러므로 돈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사든지 팔든지 카드만 쓰면 된다. 수표책을 볼 필요도 없고 현금으로 속을 썩일 일은 결코 없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카드의 도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레이저로 문신을 새겨 문신된 숫자로 카드를 체크하는 것이다. 아무도 그 숫자를 훔쳐갈 수 없을 것이고 성경이 말한 대로 그 수가 없이는 사거나 파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마지막 경고

계시록 14:1-5

계시록 14 장에는 144,000 무리가 또 나온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 산에 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도 더붙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14:1-4)

나는 이 사람들이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메시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대교인들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임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맺은 동맹을 반대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엘리야와 두 번째 선지자(모세나 예녹, 아니면 스룹바벨)가 두 증인으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 때, 요한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한 별(사단)을 보았다(9 장). 사단이 무저갱을 열자 그 속에 있던 모든 지옥의 생물들이 땅으로 나왔다. 이 생물들은 메뚜기같이 생겼지만 전갈처럼 찌르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144,000 명은 하나님의 표와 인이 있기 때문에 남은 심판의 해를 받지 않는다.

144,000 명에 관한 예표는 구약성경에도 있다. 노아 시대는 세상에 악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려고 걱정하셨고, 유일한 의인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그 말씀에 따라 노아는 방주를 짓고 동물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자마자 심판이 시작되었다. 노아는 하나님에 의해 인을 받아 방주 안에 남겨짐으로써 재앙과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다(창 6, 7 장). 그는 144,000 명에 대한 예표라 할 수 있다.

노아의 조상 예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창 5:24). 예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심판이 이르기 전에 들림받는 교회에 대한 예표이다.

앞서 말했듯이 스스로 144,000 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많다. 그러나 계시록 7 장은 이 무리가 열두 지파에서 각각 12,000 명씩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분명히 말해 준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이라는 절을 뛰어 넘어간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나? 그것은 여호와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곧 자기들이 144,000 명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상 올바른 이름이 아니다. 사전을 한번 찾아보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래 이름은 야훼(YHWH)이다.

144,000 명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들은 정절이 있는 순결한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므로 어린양과 함께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144,000 명은 하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들 가운데 속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 좋은 자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14:5)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되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유다는 말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유 24 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버지 앞에 세우실 때, 나는 흠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죄와 불의를 씻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혀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의 사역으로 흠없는 자로 서게 해주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144,000 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 땅에 있게 될 박해나 환난에 대한 이상 심리나 피학증 환자들이 갖는 욕망을 갖고 있음이 틀림없다. 내가 환난에 남겨진 자라 생각할 때, 내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구원받는 데에도 쉽게 가는 길이 있고 어렵게 가는 길이 있다. 우리가 힘든 길을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가도록 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달프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우리를 위한 많은(충분한) 기도가 올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조만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은 빠를수록 좋은 일이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이유도 그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죽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벧후 3:9)

용서받을 수 있는 기쁨,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기쁨, 우리의 모든 죄와 과거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견디신 것이다.(히 12:2)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자기 자신 외에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좋아하며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 교회에 위선자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늘 나라에는 위선자가 전혀 없다. 위선자들이 싫다면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편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선자들에게 둘러싸이고 말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 이외에 어떤 사람도 비난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실 준비가 되어 있다. 144,000 명은 이마에 인을 받게 될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기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를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고 싶어하시는 인은 성령이다. 교회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값 주고 사신 구속에 이르는 보증금과 같은 것이다.(엡 1:13-14)

하나님은 나를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속한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은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그분의 소유라는 표를 찍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신다. 나를 인치셨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전한 생활을 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그 표는 나에게 있다. 나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나를 받으시고, 깨끗케 하시며, 회복시키신다. “좋아, 다시 한 번 해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시며 그분의 것으로 인치기 원하신다. 복음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오래된 나쁜 습성들과 약점들을 멸하실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죄를 멸하실 수 있다. 우리의 그 성품, 태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계시록 14:6-13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가졌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14:6)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한때 “왕을 모셔오자”라는 주제 아래 대단한 선교적 열망이 일어났었다. 이것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그 날을 앞당기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당신이 그렇게 편하게 앉아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상 주님은 오실 수 없다!” 이것은 선교에 큰 도전이 되었고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존재들을 사용해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다.

초자연적인 사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14:7)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들에게 청하고 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14:8)

이것은 17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14:9-11)

모든 사람이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태도를 취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며,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도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수정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22:18-19)고 하셨다. 그러니 나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라고 청하지 말라.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처할 곤경은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급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14:12-13)

이 때에는 죽음이 오히려 나은 것이 된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곳보다 더 좋은 곳에 있게 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끔찍한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기 때문이다.

계시록 14:14-20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에 앞서 세상은 온통 피로 물들게 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황폐케 할 어두움의 세력과 사단의 군대를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 놓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성경에서 많이 읽고 들어온 이 끔찍한 **아마겟돈 전쟁**을 요한은 환상으로 보았다. 이 전쟁이 일어날 장소는 므깃도 골짜기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내가 보니 흰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도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갈레까지 닿았고 일천 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14:14-20)

이것은 큰 아마겟돈 전쟁으로 므깃도 골짜기가 피에 젖게 될 것을 묘사한다. 계시록 16 장에는 천하의 임금들을 모을 세 더러운 영이 나온다(13-14 절). 적그리스도는 유럽 국가의 연합 전선을 통하여 자기 세력과 지도권을 구축하고 엄청난 군사력으로 키워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겠는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동방의 나라들, 아마도 일본과 중국과 인도가 연합하여 말라버린 유프라테스 강을 거쳐 동쪽으로부터 내려와 적그리스도를 공격하려 할 것이다. 그 연합 세력은 아마도 미국이 가담하게 될 유럽의 세력과 맞서 므깃도 골짜기에서 큰 전쟁을 벌일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다. 인간의 부패한 나라들은 익은 포도 열매처럼 짓밟히고 터질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대학살이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재앙이 닥친다!

15 장은 16 장에 대한 소개 부분이다. 즉 16 장의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설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여준다.

계시록에는 때때로 이해하거나 따라가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 관련된 사건들이 항상 연대적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많은 경우에 전반적인 상황을 기술한 다음에

되돌아가 상세히 설명하고 앞서 설명했던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도 한다. 15 장과 16 장도 이런 경우이다. 즉 15 장과 16 장은 앞서 이미 설명한 사건들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장이라 할 수 있다.

계시록 10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14 장에서도 다루어진다. 그러나 15 장과 16 장에 있는 사건들은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한 이유로 이 땅에 곧 쏟아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기 바로 전에 세상을 깨끗케 하실 것이다.

15 장에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나와 있고, 16 장에는 그에 대응하여 대환난 기간에 세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 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계시록 15:1-3

또 내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15:1)

‘이적’이라는 단어는 ‘기사’나 ‘기적’을 의미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사와 징조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다. 이제 하늘에 또 다른 기적이 보인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 세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끝이 나고, 이로써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도 마치게 된다. 이것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와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 두실 것이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15:2)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나타난다. 계시록 4 장에서 요한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고 말했다(4:6). 그런데 여기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이다. 이것은 임박한 불 같은 재앙인 일곱 재앙을 예언하는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15:2)

하늘 나라의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이들은 교회가 아니다. 아마도 계시록 7 장에서 인치심을 받은 144,000 무리일 것이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을 이길 것이며,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들려올라가고, 막는 자가 제거되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살후 2:3-8). 그리고 난 후 적그리스도는 온갖 기적과 속임수로 ‘택한 자’일지라도 속이며 많은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을 맺게 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선 무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15:3)

이 말씀은 이 무리가 이스라엘의 144,000 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모세의 노래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관한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물이 애굽 군대를 막아 대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와 구원의 노래인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출 15:1-21)

이 무리들은 그들의 대적인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15:3)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선언한 점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는 비할 데 없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므로 공의에 도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 있는 144,000 명은 “성도들의 왕이 공의로우시고 참되시다”라고 노래로서 선포하고 있다.

계시록 15:4-8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기록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15:4)

어느 누가 와서 경배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만국이 다 그 분 앞에 나아와 경배한다. 그리스도는 만국을 다스리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하신다.(빌 2:10-11)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cherubim, 천사]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15:5-8)

흥미로운 것은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세우게 하신 땅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었다. 거기에는 여러 마당과 성소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중앙에 있는 지성소, ‘시은좌’(mercy seat)가 있었다(히 8:5).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이 세상의 장막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 제물로서 그분의 보혈을 바치시려고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히 9:24)

이제 요한은 일곱 천사가 나오고 그룹이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일곱 금대접을 주는 것을 본다. 이 일곱 천사들은 16 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을 땅에 쏟아놓는다. 이 재앙들은 영광 중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선 마지막 심판이다.

절망적인 세상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재미있는 주제도 아니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이상적인 논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 하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 백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요일 4:8).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배반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처럼 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인격성의 또 다른 면, 즉 그분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히 10:30-31). 16 장에는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무서운 일들을 피해가고 싶다. 그것은 믿기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 하나님, 그 동안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 동안 악한 짓만 해왔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사람들이 이렇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멸망받을 만한 탐욕을 품었는지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계시록 16 장의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당신은 계시록 16 장의 일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분을 거역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로 하나님을 비난하지만 당신이 죄인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이 당하지 않도록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요 3:16). 그분은 당신을 구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 바로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 3:17-19)

당신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해 여러 가지 항변을 할 수도 있다. “내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지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두들겨 뺐어요.” 당신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럴 듯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신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할지 몰랐어요”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교회를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분의 아들을 믿으라고 하셨다.

그들은 또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위선자들을 믿으라고 명하시지 않았다. 오직 그분의 아들을 믿으라고 하셨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우리 가운데 어두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는 문을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거두어 가신다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될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러한 일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진다면 악의 세력들(지금은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억압되어 있는 귀신의 세력들)은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6 장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희망이 없는 세상, 절망에 가득 찬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

계시록 16:1-4

15 장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이 땅 위에 쏟아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16:1)

성전에서 나는 목소리는 아마도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16:2)

다시 적그리스도 이야기로 돌아간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고, 여러 국가들을 평화 공존하도록 하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적과 징표를 일으키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죄에 속한 사람이다. 전세계가 이 사람을 따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은 없다. 그는 참으로 현명하며,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그는 우선 손목이나 이마에 숫자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 없는 금융 제도를 유럽 공동체에서 실행하게 만들 것이다.(13:7)

우리는 이미 숫자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나날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 현금은 구시대의 유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데가 난다고 했다. ‘악하고 독한 헌데’란 말 그대로 종기나 궤양 같은 것이 허물어져서 고름이 흐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 나타났던 부작용 가운데에는 고름이 나는 헌데와 같고, 치료가 불가능한 방사선 화상이 있었다. 폭발로 인한 사망보다 방사능 후유증으로 인한 희생자가 더 많았다. 방사능이 헌데를 유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16:3)

바다는 오염되어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16:4)

계시록 16:5-7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기록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16:5-7)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하시면 모든 죄와 불순종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처형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선지자도 죽였다. 그들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로 그 피를 마시게 하신다. 그래서 맑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다.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핏물이 나온다.

천사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들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주님께서 저들로 그 피를 마시게 하시니, 그것은 저들의 행악에 합당합니다”라고 말한다. 하늘의 제단에서도 소리가 있어 “주 하나님이니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공평하게 심판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불공평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아니라면 당신에게는 기회가 없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잔재주로 그럭저럭 살아가거나, 어떤 처지에서도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문제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내게는 기회가 없었어요!”라고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당신의 그 중심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다시 돌려서 당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보여 주신다. 성경에는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된다고 했다(눅 12:2).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분의 심판은 기록하고 의로우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처리하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과연 의로우시다! 주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믿게 만든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로 하나님을 모함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 나무 열매 먹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는 정말로 공의롭지 못하다.”(창 3:4-5 참조)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도전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이같은 재앙이 쏟아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공평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계시록 16:8-11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16:8-9)

오늘날 과학자들은 오존층의 파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으니 얼마나 흥미로운가! 분무기 깡통 속에 있는 클로로플로메탄이 대기중으로 올라가면 오존층을 파괴한다. 또 초음속의 수송 비행기도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있다.

지구를 두르고 있는 이 오존층은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한다. 오존층의 보호가 없다면 태양의 자외선이 여과될 수 없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오존층이 파괴되어 약 8년 이내에 지구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구가 태양에 노출되면 사람들은 화상을 입게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태워질 것’이다.

대기 중에 폭발된 핵탄두는 다른 어떤 화학물질보다도 오존 가스에 더 치명적이다. 대환난 때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결국 이 오존층에도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재앙은 ‘노바’ 혹은 ‘초노바’ 현상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별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인데, 예를 들면 어떤 별이 15 배로 커졌다가 2~3 일 내에 3 배로 줄어든다. 그 별은 확대되면서 점점 밝아졌다가 어두워진다. 어떤 별들은 실제로 사라지고 있다.

네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지구의 행성인 태양이 바로 그런 새로운 별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굉장히 뜨거운 사막에 가본 적이 있는데, 태양이 갑자기 확장된다면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뜨거울 것이다. 황폐케 하는 열기는 이 지구를 태워버릴 것이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마치 태양이 새로운 별 상태에 이르러 곧 맑게 빛난 후 어두움이 따른 것처럼]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16:10)

사람들의 고통은 첫번째 대접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발한 헌데에서 오는 것이거나, 태양의 열로 인한 온 몸의 화상과 물집으로 인한 고통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 강퍅해져 하나님을 모독한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16:11)

이상할만큼 인간이 어리석지 않은가! 재앙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훼방하고 그 재난을 그분의 탓으로 돌린다.

어찌하여 사람들은 재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가?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어기면서 그 결과로 오는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 한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을 욕한다.

계시록 6:12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16:12)

큰 강 유브라테는 약 1,800 마일(2,880 킬로미터)이나 된다. 폭은 3~12 마일(약 5~20 킬로미터)이고, 수심은 평균 30 피트(약 9 미터)이다. 그래서 유브라테 강은 동쪽 제국과 서쪽 제국을 나누는 자연적 경계물이 된다. 이집트와 아스완 댐(Aswan Dam)에서 일한 적이 있는 러시아 기술자들이 다시 강 건너편의 시리아에서 한 큰 댐을 건설하기도 한다. 유브라테 댐은 현재 약 3분의 2가 완공되었다. 유브라테 강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 그 강이 댐으로 막혀 버린다면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에 유브라테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흥미롭지 않은가! 이 말씀이 오늘날 실제로 이루어짐을 보고 있는 것이다.

아스완 댐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와 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애굽의 큰 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일 강이 마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될 모든 생태학적 재난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사 19:5-10).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먼저 어업이 쇠하고 있다. 아스완 계획으로 인해서 소금물 유입이 늘어나 농가에 유익보다는 해를 주고 있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생태학적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한 번만 읽었다더라면 그들은 댐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예언되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흥미롭다.

계시록 16:13-17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 [사단] 의 입과 짐승 [적그리스도] 의 입과 거짓 선지자 [세계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이끄는 사람] 의 입에서 나오니(16:13)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의 영은 입을 통해서 그 몸을 떠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그가 생령이 되었다고 했다.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 영이 입으로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기억한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도 많은 경우에 큰 울부짖음이 입 밖으로 나왔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사단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16:14)

천하 임금들은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이 거대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히틀러는 세상을 거의 정복할 뻔했으나 몇 가지 사소한 이유로 정복을 완성시키지 못했는데, 그 중 하나는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히틀러가 핵무기를 미국보다 먼저 개발했다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히틀러는 귀신 섬기는 자들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히틀러를 조종했던 이 지도자들은 제 3 제국 멸망 후 남미로 이주했다. 그들은 지금 페루에 있는 안데스에 살고 있다. 제 3 제국의 배후 주동자들이었던 이 사람들 역시 사단에게 조종당했던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 더러운 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히틀러가 악령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악령의 지배 아래 있는 한 영향력 있는 권세자의 결과를 알 수 있다. 또한 세상의 세 왕이 귀신 들려 그들의 군대를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모으게 될 때에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짐작할 수 있다.

주님은 **경고**하신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16:15)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시리라는 경고를 하신다. 그분은 도적과 같이 곧 오신다고 했다. “깨어서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란 이 환난이 일어날 때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주께서 교회에 말씀하셨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눅 21:36).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주신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마 24:42-43). 이 말씀은 모두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16:16)

아마겟돈은 고대도시 므깃도 바로 밑에 있는 이스르엘(Jezereel) 골짜기와 에스드렐론(Esdraelon) 광야에 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16:17)

전에도 이와 똑같은 말이 있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요 19:30)고 외치시고는 돌아가셨다. 주님은 자신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일이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승리의 외침이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요 10:18)고 말씀하셨다. 우리 죄값으로 주님은 생명을 내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속 사역을 이루셨던 것이다.

그런데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하늘 보좌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다 되었다(이루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즉 마지막 분노이다.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외침은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구원을 가져다 주고, 두 번째 “다 되었다”는 외침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다 끝났음을 선포한다.

계시록 16:18-21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음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16:18)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히 12:26). 또 한 번의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번 지진은 온 세상을 흔든다. 그것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강도가 큰 지진이다.

이 지진은 온 땅을 강타할 것이다. 모든 산과 섬에도 지진이 날 것이므로 이 때에 대피소라든가 안전한 장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16:19-21)

한 달란트는 약 100 파운드(약 40 킬로그램)가 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얼음 장사가 가정용 얼음 상자에 넣을 만한 얼음 덩어리를 팔았었다. 그 얼음 덩어리는 50~100 파운드에 달했다. 그런 엄청난 우박이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아리조나와 텍사스에는 눈이 심하게 내린다. 야구공 만한 우박이 지붕을 망가뜨리고 나무에도 떨어진다. 이 우박으로 굉장한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 60~100 파운드나 되는 큰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겠는가?

이러한 자연적인 재난들로 인해서 기후는 틀림없이 크게 바뀌어질 것이다. 성경에는 사막이 장미처럼 꽃피고, 사막에 샘이 흐르고, 건조한 곳에는 웅덩이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사 35:1, 6-7)

저주가 사라졌다. 식물의 가시는 나뭇잎이 퇴화한 것이라고 한다. 선인장에 있는 가시들이 모두 잎이 된다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면 새로운 활기를 얻은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스런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될 그 날을 고대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거짓 교회

하나님께서 십대인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렘 1:10)

당시에 이스라엘은 심각한 정도로 부패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건설하고 심기 전에 먼저 남아 있는 것들을 모두 뽑으셔야만 했다. 이 세상은 너무도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심어 건설하시기 전에 먼저 세상의 악한 제도들을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하셔야 했다.

17 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종교 체도를 멸하는 것이다.(17:5)

가증한 것들로 채워진 잔, 즉 거짓 종교 체제의 멸망을 다루기에 앞서서 분명히 표명해야 할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 그러한 거짓 종교 체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고발자의 손가락이 거짓 종교 체제를 가리키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개인에 대한 반목이나, 또는 불행히도 그런 체제에 속아넘어간 사람들에게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 사실상 교회는 어둡고, 추하고, 흉악하며 서글프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변호할 수가 없다.

오래 전에 교회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 없이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으로부터 끊어져 나왔다. 교회는 “우리끼리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과 조직, 그리고 인간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아주 복잡하고 의식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쉽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께 말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아무때나, 또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친밀한 상호 교통과 사귀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종교적 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형태의 우선 순위와 범주를 제멋대로 설정해 놓았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 부유 계층과 특권 계층을 옹호하게 되었다. 편애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한몸으로 생각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시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다(갈 3:28).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보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교회사, 그 중에서도 특히 중세 암흑 시대의 교회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그 시기의 어둠은 교회가 백성들을 엄격하고 철저히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억압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의 심한 박해를 겪었다. 교회가 세워지고 300년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리스도인은 약 6백만 명이나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사형수가 됨을 의미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 때 와서(주후 288-337년) 큰 변화가 있었다.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콘스탄틴 대제는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기독교를 인정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主)로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교회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박해받던 자리에서 권력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 교회는 국가와 결합되었고, 국가는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법률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보면서 교회와 국가 모두에게 권력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문제를 놓쳤다. 의는 결코 법률로 제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교황의 자리가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경매로 팔리게 되고,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도덕과 음탕한 일들이 행해졌던 중세의 교회사를 우리는 차마 낫 뜨거워 볼 수 없다. 교회에는 진실된 영성이 없었다.

대타협이 이루어진다.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교도들의 경축 행사에 기독교식 이름을 붙여 기독교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그는 농신제라는 이교 의식을 수용했다. 그것은 원래 로마에서 12월 25일에 행해진 것으로 진탕 마시고 노는 술잔치가 있었던 축제일인데, 이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촛불을 켜고, 동지 때는 기운 없고 오래된 태양을 위해 큰 횃불을 피우기도 했다.

콘스탄틴 대제는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제정했다. 그는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날이라고 축하하면서 '크리스마스'(Christmas)라고 불렀다. 농신제 기간 중에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미사가 거행되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이교식 관례를 따르고 있다. 요즘에 와서는 크리스마스가 전세계적으로 더욱더 이교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은 로마 시대보다 더하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각종 파티, 여흥, 선물 주고받기, 의식적인 축하 행사들뿐이다.

봄의 축제 역시 기독교와 혼합되었다. 아스타르테(Aastarte)는 영원한 생명의 여신이었다. 생명을 상징하는 달걀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하는 것은 그 축하 행사의 한 부분이었다. 교회는 “이것을 부활절(Easter)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을 축하하도록 한다”고 했다.

성직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종교에 있었던 것이다. 우상이 들어오고, 고해성사가 들어오고, 심지어 경배와 예식들조차도 모두 바벨론 종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교회에 소개되면서 교회 의식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것들은 초대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로서, 교회에 들어와 점점 예배와 경배를 더럽혔다. 주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교도들의 방식을 좇아서 하나님을 섬겼다.

종교 재판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하고 신실한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했는데, 그들은 모두 단순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들이다. 그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어둡고 추한 교회사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독교 형제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 안에도 많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있다. 나는 카톨릭 교회 안에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을 뽑아내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 올 자들을 빼시는 것이다. 오늘날 카톨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부흥 운동은, 이제까지 카톨릭 역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증유의 운동이다.

바티칸에서 수 천 명의 카톨릭 교도들이 미사를 드리기 위해 성 베드로 성당에 모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갈보리 교회에서 부르는 것과 같은 찬송도 했다. 교황은 이 신자들에게 모든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더욱 열심을 내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로써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하나님이 그 조직을 성령으로 움직이시고 계셨다. 카톨릭 교도 가운데 진실로 믿는 자는 교회가 들림받을 때 함께할 것이다. 남겨져 그 조직을 다스리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오래전부터 그것을 위해 기도해온 나로서는 그 일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계시록 17:1-5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음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17:1)

‘많은 물’은 많은 나라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큰 음녀’란 그런 많은 나라에 대한 세력과 지배권을 얻게 된
올바르지 못한 교회 제도를 말한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17:2-3)

“일곱 머리와 열 뿔”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계시록 13 장에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적그리스도)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중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중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17:4-5)

비밀과 바벨론이 이 교회 제도의 정체이다. 역사를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알렉산더 히슬롭(Alexander Hislop)이 지은 「두 바벨론(The Two Babylons)」이라는 책을 권하고 싶다. 히슬롭은 고대 바벨론 종교의 역사적 정체성을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해 온 이 종교 제도와 하나로 보고 있다.

계시록 17:6-9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17:6-7)

이것은 거짓된 교회 제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어떤 공모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 같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17:8-9)

요한은 우리에게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라고 말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도성을 가리키고 있다.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이다. 예로부터 로마는 “일곱 언덕의 도성”으로 알려져 왔던 것이다.

계시록 17:10-11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17:10-11)

짐승의 정체성은 계시록 17 장에서 언급된다. 그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로마는 틀림없는 도성으로 확인되었다. 요한은 일곱 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다섯은 망했다고 한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의 로마 황제는 도미시안 이었다. 순서를 따진다면 그는 여섯 번째 황제였다. 그 뒤를 이어 한 명의 황제가 더 있었고 그 뒤를 이을 또 한 명의 황제가 있는데, 그가 여덟 번째이며 또한 일곱 중에 속한 자이다.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과 관련하여 성령이 지혜와 이해력을 주시는 것으로 보인다. 요한이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자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지옥에 떨어지거나 멸망에 들어간다.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는 네로였다. 그는 초대교회에 ‘짐승’으로 알려진 자로서 삶에서의 극적인 변화로 매우 흥미있는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도 처음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는 꽤 분별있는 통치자처럼 보였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유익한 건축 계획에 착수했고, 실제로 고린도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나 마치지는 못하였다.

어떤 극적인 변화가 그의 삶에 찾아왔고, 그 이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로 앞에 섰던 바로 직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관심을 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류되었을 때, 자신의 문제를 가이사(시이저)에게 호소하였는데, 이 때 총독 베스도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행 25:12). 그래서 바울은 황제 앞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로마로 보내진다.

재판을 받기 위해 네로 앞에 선 바울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력을 다했을 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바울의 방식이었다. 유대인 앞에서 변론할 때나 벨릭스나 아그립바 앞에서 변론할 때에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네로가 이제까지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했을 것이고, 바울이 변호를 마쳤을 때 네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명확한 관계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네로는 바울을 풀어 주었으나 그로부터 얼마 후, 갑자기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 같다. 바울이 전해준 메시지를 거부한 네로는 자기 삶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고, 그래서 악령이 들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돌려서 무자비한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의 몸에 콜타르를 칠하고, 정원에서 그들의 몸에 불을 질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면서 불타는 시체 사이로 그의 마차를 달리게 했다. 그리고 바울을 다시 체포하여 처형시키고 베드로도 잡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았다.

계시록에서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실 당시 네로는 이미 죽은 후였다. 그는 당시로는 없는 자이나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자이다. 나는 네로 황제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 악령이 앞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적그리스도도 사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모든 특징이 적그리스도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13 장에서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고 했다.(13:18)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는 각 문자마다 고유한 숫자가 매겨져 있다.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Caesar nero)라는 이름의 글자가 갖는 수는 모두 666이다. 나는 네로 황제를 사로잡았던 그 악령이 적그리스도도 사로잡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데, 그러면 똑같은 악령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네로가 행했던 악행 가운데 몇 가지를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도 행할 것이라고 본다.

계시록 17:12-13

내가 보던 열 빨은 열 왕이니(17:12)

이 열 빨은 열 왕 또는 마지막으로 세상의 권세를 병합하게 될 유럽의 열 나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가리킨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머리는 정금ियो,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는 놋ियो, 종아리는 철이며, 발의 열마는 철이고 열마는 진흙인 한 우상을 보았는데(단 2:31-45), 사람의 손으로 쓰이지 않은 한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뜨렸다. 그러자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고 그 나라는 붕괴되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왕은 곧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그러나 왕의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에 넘어갈 것이니 이는 곧 은으로 된 가슴과 팔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는 그리스 제국으로서, 곧 놋으로 된 배입니다. 또 그 다음은 로마 제국이며, 이것은 철로 된 종아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라는 열 개의 발가락이 있는 철과 진흙으로 혼합된 나라입니다.” 바로 이 열 왕의 때에 산에서 돌이 나와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들을 멸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내용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실현되어 왔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17:12-13)

일단 유럽 경제 공동체(EEC)가 열 개의 나라로 완전히 형성이 되면, 강한 지도력이 필요하게 된다. 열 명의 사람이 각각 대표자로 행동하기 때문에 지도력이 분열되어 정책에 우유부단함이 보일 것이다. 그 열 사람 중 아무에게도 실질적인 결정적 세력은 없다.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 열 나라의 무리를 이끌 한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권세를 한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될 것이다.

계시록 17:14-18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17:14)

예수님과 함께 있을 자들의 자격은 세 가지이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빼내었으니,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5:16)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앗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멸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17:15-18)

로마는 요한의 기록 당시에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던 성이었는데, 유럽 공동체에서도 특출한 곳으로 다시 한 번 부상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그 큰 성과, 그 성에서부터 일어난 종교 제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파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2:15). 또 주님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하셨다.(고후 6:17-18)

성경이 말한 ‘세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정치적인 면, 종교적인 면, 상업적인 면이 그것이다. 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정치 제도는 적그리스도가 이끌고, 종교 제도는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비밀, 바벨론**이라 불리는 큰 음녀가 주관한다. 이 음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가지지 못한 거대한 종교 제도를 가리킨다. 비밀, 바벨론이라는 종교 제도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 세상으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이끈다. 마지막으로 상업적인 세상은 상업적 바벨론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바벨론은 홍수 후 인간이 세운 최초의 대제국이였다. 노아의 아들 셈은 세계 제국이 시작되는 바벨론 광야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바벨론은 세상에서의 사단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업, 종교 제국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통합적 의미에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하는 그 ‘세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의 금융제도, 세계의 정부, 세계의 종교는 크게 발전하고 확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세상 나라들은 적그리스도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며 정치적, 상업적 이해 관계가 함께 얽혀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금융 제도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표 없이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이다.

앞서 17 장에서는 **비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종교 제도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18 장에는 바벨론의 상업상의 멸망이 다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종교적 바벨론이 로마인 것을 암시했지만, 상업상의 바벨론에 대해서는 비밀로 남겨 두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18 장에 예언된 대로 멸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대 바벨론 도성이 재건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고대 바벨론이 다시 한 번 세상의 상업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바벨론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리라는 예언(사 13:19-22)이 아직 문자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대 바벨론 성이 유브라테 강가에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바벨론의 역사와 그 패망을 볼 때에,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모두 실현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계시록 18 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재건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갑작스런 세계의 부의 이동은 매우 흥미로운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풍부한 석유를 통해서 쏟아지는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아랍인들이 거대한 도시, 즉 옛 바벨론을 재건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바벨론이 재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이 반드시 재건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종교적으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업 중심 도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바벨론은 항구 도시이며, 세계의 모든 상업적 이해 관계가 관장될 큰 도시일 것이다. 그것은 뉴욕일 수도 있다. 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어떤 큰 항구 도시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로 바벨론이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

돈을 벌어라! 우리는 자유 경제 체제를 사랑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사서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세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본래 자본주의에는 고유한 어떤 제약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미끼로 삼아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대한 상업적 이해가 판치고 있다. 과거에는 언제나 정치적 이해와 상업적 이해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었다. 왕은 상인을 구별해서 다스렸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정치적 세력과 상업적 이해가 하나로 결합되었다. 큰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엄청난 상업적 이해 관계에서 얻는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계획되거나 꾸며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상업주의에 이용되고 착취당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이 상업주의라는 사단의 제도의 희생자인 셈이다.

이렇게 인간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엄청난 세력을 이루는 사악한 경제 체제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돈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인간의 종교나 정치 체제, 또한 경제 체제도 분명히 혼돈되고 있다. 계시록 18 장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 후에 일어날 멸망이 기록되어 있다. 즉 큰 바벨론의 상업적 제도의 멸망이다.

계시록 18:1-5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18:1)

천사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들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천사는 유력한 천사이다.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18:2-3)

세계 정치와 손잡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된 거대한 상업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뉴욕 시에서 월 스트리트(Wall Street)가 상업적 이해를 대표하고, 파크 에비뉴(Park Avenue)가 교회를 나타낸다면, 이 모든 제도는 ‘세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계시록 18 장 첫머리에 보면 세상은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취하였고, 땅의 왕들이 바벨론으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세상의 상인들도 바벨론의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세상을 지배해 왔고 지금도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이 단일 체제의 상업 제도를 가만히 보면, 국가들의 정책이 상업적 이해 관계에 의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그런 계획들에 의해 교묘히 조종될 것이며, 이 세력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돈이 많은 만큼 많은 세력을 얻는다. 우리는 희생자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다.

이 세력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놓고 노름을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에게도 자기 하는 일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왕처럼 군림하며,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감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6 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18:4-5)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유다를 부르셔서 이 상업 제도에서 나오게 하신다.

사람들은 종종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 하나님께서 종교적 바벨론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문맥상으로 상업적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방 교회(Local Church)는 다른 모든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는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한다. 그리고 지방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다.

이제 바벨론은 재앙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부르시는 것이다.

계시록 18:6-10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18:6-10)

바벨론의 멸망은 순식간이다. 바벨론은 일시에 소멸될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의 연기가 솟아오를 것이다.

그 때에 세상의 상업 중심지가 어느 도시이든 그 큰 성 바벨론은 원자폭탄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라는 말은 그 지역에 떨어진 방사능을 무서워한다는 뜻일 것이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했다(10, 15 절). 이 큰 상업 제도가 일시간에 멸망할 것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거기에 접근하기조차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계시록 18:11-14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18:11)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애통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약 5:1-3). 이것은 상업주의의 몰락을 나타낸다.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고, 사치스럽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18:12-13)

부패한 상품들은 생필품이 아니고 모두 사치품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상업주의는 사치 품목을 다루는 시장을 만들어 내고 또 발전시켰다. 그들이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게 된 방법은 이것이다. ‘노예’라는 말은 ‘몸’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소유물을 가지고 사치스럽게 살기 위해서 자기 몸과 영혼을 판다.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18:14)

상품을 광고하는 사람들은 빈틈없는 광고 계획을 통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들은 우리가 그 특별한 향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 향수를 쓰지 않는 한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속에 허구적인 필요를 갖게 함으로써, 우리가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유행에 속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교묘한 전략에 빠지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이 큰 상업적 이익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수입의 상당한 부분이 매주마다 컬러 텔레비전, 새 자동차, 또는 유행하는 사치품들을 사기 위해 쓰인다. 사람들은 희생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사치품이나 생활을 안락하게 해주는 것들에 유혹되어 왔기 때문에, 정말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는 빚지고 있는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느끼게 된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눅 12:15).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느니라”(딤후 6:8, 6)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입던 옷이 오래 되어 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옷이 유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리고 새 옷을 산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최신 유행의 노예가 된 데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고, 곧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이 악하고 추한 심판받을 상업 제도의 손아귀에서도 자유롭게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세상의 모든 상업적 조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노예된 데서 해방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영광스러운 사실은 내가 더 이상 세상 제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세상 제도의 유혹에 끌려 빚지며 쓸데없는 것들을 사보라. 사실 그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가질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것이 없어도 행복하다.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며 유혹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모두 가질 필요는 없다. 그것을 모두 가진다 해도 여전히 모자라는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가진다면 다른 것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기 때문이다. 물질을 소유한다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질을 소유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간에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의 노예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며,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바울은 말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1-12).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므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큰 비밀이다. 이 세상에 관한 한 우리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인생은 순례의 길일 뿐이다. 이 세상이 우리 본향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의 곡조에 맞춰 춤도 추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진다. 그들이 원하면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순례자요 나그네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고대한다. 나는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곧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나는 히피운동을 한편으로는 참 반가워했다. 젊은이들이 유물주의 사회에 반항하기 시작하자, 큰 기업주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어린 아이들도 더 이상 새로운 자동차(Corvettes)를 사달라고 아빠를 조르지

않았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걸거나, 또는 지나가는 차를 세워 얻어 타기도 했다. 차가 없어도 상관하지 않았다. 낡고 못쓰게 된 소형 트럭(Van)도 괜찮았다.

물론 상업주의는 재편성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광고업자들은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이익과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잠깐 동안 아이들은 정말로 그들을 동요케 만들었다. 나는 웃으면서 그 형세를 관망했다. “얘들아, 맞다! 너희에게는 저런 것들이 필요없단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행복도, 기쁨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리고 평화나, 만족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구.” 그리고 다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들이 참된 해답에 더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만물을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면 원래의 모습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모습을 의미한다.

계시록 18:14-19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18:14-15)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벌어지는 광경은 얼마나 비극적인가! 상인들도, 왕들도, 선원들도 모두 주위에 서서 울면서 애통한다.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18:16-19)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순식간에 망하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거대한 상업 조직인 바벨론으로부터 이윤을 얻고 치부하였던 사람들이 크게 울며 외치며 애통한다.

계시록 18:20-24

땅에서 이런 멸망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취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18:20-23)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은 광고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18:24)

이것이 종교적인 바벨론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로마의 멸망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세상의 상업적 바벨론을 대표하는 또 다른 도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유브라테 강가에 바벨론이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 나는 이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는 편견이 없다.

이제 계시록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화와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 준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제도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는 것이다.

왕국 시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 55:1). 왕국 시대에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값없이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왕국 시대에는 교역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완전히 공유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무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소유를 공유하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게 하신다.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이다. 가진 것을 모두 공유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면 가난도, 궁핍도, 빈곤도 없을 것이다.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것들을 완전히 함께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7년 대환난의 또 다른 국면에 이르게 될 때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 여정은 힘들다. 그러나 계시록 19 장에서 하나님의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예수의 지상 재림

계시록 19:1-4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19:1-4)

“그 연기”에서 “그”는 벌을 받은 음녀를 가리킨다.

교회는 하늘에서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다.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고 묻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과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의로우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사법 제도는 많이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법원의 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들은 언제나 참되고 언제나 의로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엇갈리는 증언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때는 그 모든 세세한 일들과 모든 마음의 동기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되고 의로우신 것이다.

계시록 19:5-8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19:5-6)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타락하게 내버려 두셨고, 재앙이 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떠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하나님을 거역한 그 결과와 열매를 보는 것일 뿐이다. 곤경에 처하여 우리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부르짖으며 의아해 한다.

그러나 심판날이 이르면,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력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영광의 찬양을 외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멀리서 들리는 뇌성과도 같을 것이며, 또는 힘찬 폭포 소리와도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19:7)

“어린 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아내는 교회이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고 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19:8)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의를 가리킨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써 이룬 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계시록 19:9-10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19:9-10)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시작하고 있다. 계시록의 대부분은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로 되어 있다. 본문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입고 그분께 영접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압도되어 있다. 천사가 이러한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고 요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자, 요한은 엎드려 그를 경배하려고 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한다. “이봐, 일어서라구! 나도 너와 똑같아. 나도 종이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경배해.” 그러면서 이렇게 단언한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구약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요 5:39)이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이며 정수이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하셨다(히 10:7). 대언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은 대언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성령의 사역과 임무는 사람이 아닌 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 참된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영이다.

계시록 19:11-15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19:11)

마라나타! 주의 임하심이 실현된다. 1:5 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3:14)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의로운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행하실 것이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19:12-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5, 11-14)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인 면류관이 있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곳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19:14)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비할 때 입는 옷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게 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4)고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19:15)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다(히 4:12).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힘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창 1:3).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다.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헬라어로 ‘다스린다’는 말은 ‘양을 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그가 친히 저희를 돌보시며”라는 말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곧 그분의 통치 특성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4-15). 또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1, 2). 예수님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철장으로 지키신다.

계시록 19:16-21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19:16-21)

이것은 적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와 사단이 세상의 임금들을 모기도 골짜기로 모아, 하나님과 이 모든 백성들로 더불어 마지막 큰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그들은 멸하게 된다.

이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그분의 발을 놓으실 것이다. 그분이 감람산 위에 발을 올려 놓으시면 그 산은 가운데가 갈려져서 새로운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큰 돌로 봉해져 있는 동문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다. 선지자 에스겔은 예언하기를 그 문은 닫혀 있을 것이며, 아무도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다. 그 문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으로 들어가 그 문 현관에서 음식을 드실 것이다.(겔 44:1-3)

짐승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말할 것이다(13:4). 그러나 오직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주 가운데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런 권세를 가지신다. 주님의 재림시에 그 나타나심으로 인해 적그리스도는 폐하여진다.(살후 2:8)

“유황불 붙는 못”은 성경에서 지옥(Gehenna)이라고도 묘사하는 유황이 타는 불못을 의미한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을 멸하실 것이다.

완전한 정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20:1)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abyssos)이다. 9 장에서는 이 무저갱의 천사인 사단이 무저갱을 열고 사단의 무리를 풀어놓았다. 그들은 큰 파멸과 고통, 고뇌, 죽음 등을 가지고 전세계에 퍼졌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20:2-3)

그 누구도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으며 우리가 왕국 시대에 있다고 속일 수 없다. 본문에는 왕국 시대에 사단이 큰 쇠사슬에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때문에 사단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격노하며 그 세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도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지는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실 때에는 천사들이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으로 던질 것이다.

그 후 사단은 천 년 동안 무저갱 속에서 결박되어 가두어지고 인봉되어 쇠사슬에 묶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잠깐 동안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쇠사슬로 결박하신 후에 다시 잠깐 놓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의문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사단을 자유롭게 하셨으며, 결국 사단을 가두실 것이면 왜 오래 전에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구해 주시지 않으셨는가?’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실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악이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달리 취할 방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를 섬긴다는 것을 알고 싶어하신다.

이것은 만일 당신이 매우 아름답게 생겼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문제와 비슷하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 자체 때문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아주 부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당신의 부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알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다. 그리고 사단에게 그 선택권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미끼 삼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참된 것인지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찬양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가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려 할 때는 언제나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경배와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지금 훈련 가운데 있다. 타국에 가 있는 동안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한 주인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주인은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다. 주인이 돌아오자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열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또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저에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지금은 네 달란트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마찬가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를 받아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던 종이 와서 “주인님, 저는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은 사납고도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그래 네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니 네가 아는 그대로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마 25:14-30)라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가면 책임을 맡게 되는데, 그것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 때 우리에게 세상의 한 부분이 할당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부지런하며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더욱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이러한 사실은 특히, 누가복음 19:12-17 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때에도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주인은 게으른 종에게 주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되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은 그 때에 가서는 가질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지구는 다시 풍요롭게 결실할 것이다. 또한 사단은 결박되어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전쟁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질병도, 불행도, 미움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화와 사랑 가운데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가난함에서 부요함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때 새롭게 영광스러워진 육체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점에서 빨리 노화하는 이전의 썩어질 육체와는 다를 것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잠시 존재하는 실체만을 다룬다. 모든 물질 세계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대과학자인 존 허셸(John Herschel) 경은 우주가 태엽이 끝까지 다 감겨진 시계와 같고, 그 태엽은 천천히 풀리고 있다고 했다. 태양은 매초마다 120 만 톤의 질량을 잃어가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아마도 태양은 100 억 년 이상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열역학 법칙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퇴화하고 있으며 영망이 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육체를 새로운 방법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 육체는 천상의 요소들로 만들어질 것이다. 당신은 벽을 통과해서 그대로 곧장 걸어다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 피트(30 센티미터) 두께의 유리에다 회중 전등을 비추면 그 빛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반대편으로 나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던 방의 벽을 그냥 통과하셨다(요 20:26). 문들이 모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 육체는 아마도 행성 지구에서의 분자 구조와는 다른 분자 구조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양자, 전자, 중성자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합하셔서 이렇게 무한한 다양성을 창조해 내셨다. 그러니 이것과 다른 구성 요소가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제한되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만드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전 15:49).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육체를 만드실 때 사용하시는 구성 요소는 천국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구성 요소와 같을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육체는 피곤함도 느끼지 않을 것이며, 잠을 잘 필요도 없을 것이다. 천사처럼 빠르고 쉽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곳을, 그리고 그곳에 있게 될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곳에서는 역할도 새로워진다. 한번은 사두개인들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지어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 하였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결혼한 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었을 때는,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 들어 자식을 낳아 후사를 세워야 했다. 이것을 이용하여 사두개인들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할 때마다 아이를 갖기 전에 남편이 죽어서 결국 일곱 번이나 결혼을 하게 된다는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에 죽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다. “부활 때에 그 여자는 일곱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머리 속으로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놓고 싸우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마 22:23-30)고 대답하셨다.

사람들은 결혼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가족 단위로서 결혼제도를 마련하셨다. 이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가정이다.

하늘 나라에서는 우리도 천사와 같다.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때에 우리는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게 되겠는가? 그것은 분명히 결혼과 같은 형태는 아닐 것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하고, 영광스러운 관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성(性)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천사들은 남성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을 증명할 근거는 전혀 없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부활 때에 우리가 천사와 같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매인 자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고 말한다(골 3:11). 또한 남성, 여성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 했다.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 해방 운동도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하늘 나라에서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계시록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20:4)

왕국 시대에 누가 세상에 있게 될 것인가? 첫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둘째, 대환난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 년 동안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돌아올 것이다. 나는 구약의 성도들도 돌아오리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대환난을 견뎌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체제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그 때에 완전히 멸해질 것이다. 그들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천 년 통치 때에도 세상에 살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가? 이것은 단지 추측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유대인 가운데 3분의 1이 살아 남을 것이라고 암시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슌 13:8-9). 살아 남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의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싫은 사람,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 부패한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칠 년 동안 지낼 수 있는 어떤 생존의 수단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 사회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에게 양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도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떠맡을 것이다. 그의 표 없이는 아무도 무엇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표를 받으면 영원히 생명을 잃고 멸망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멕시코의 정글로 떠나, 국가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멕시코에는 과테말라 국경선 근처에 큰 정글 지대가 있다. 나는 그 곳에서 살 계획이 없다. 단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있을 뿐이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다. 당신의 무지 때문에 멸망당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죽는 것보다는 음식을 사거나 팔지 않고, 또 현대 사회와 아무 관계 없이 7년 대환난을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인디언들은 멕시코의 정글에서도 살아 남는다. 만약에 인디언들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다면,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세계의 체제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사회가 있기는 하다.

파나마의 Darien 지방에 있는 코코스(Chocos) 인디언이 그런 경우인데, 그들은 매우 근면하며 먹을 것을 자급자족한다. 그들은 바나나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가서 그것을 팔아 은전으로 바꿔온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정글로 다시 돌아와 쿼터(quarter-25 센트 동전)와 다임(dime-10 센트 동전)에 구멍을 뚫어 목걸이를 만든다. 그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들은 완전히 독립되어 자급자족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돈이란 햇빛에 반짝이는 예쁜 장식품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기 생존을 사회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의 경제적 압력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환난을 이겨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험한 길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신다.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그 때 지옥의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남아 있는 다른 사람들은 왕국 시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20:5-6)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마 25:34-41)고 하실 것이다.

지옥(Gehenna)은 인간에게 예비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 예비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하며 마귀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자신들의 바람을 이룰 것이다. 그들도 역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세대에 살며 그리스도의 심판을 견뎌낸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땅이 회복되는 왕국 시대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세상의 외양과 구조는 태초의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세상에는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밤마다 수분이 농축되어 대지와 초목을 부드럽게 적실 것이다. 만물이 열매 맺고 풍요롭게 될 것이다. 전세계가 마치 하와이처럼 될 것이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창 3:17-19).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땅으로 풍성히 열매 맺어 인간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셨다. 인간은 그저 나무에서 먹을 것을 따먹기만 하면 되었다.

이제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생명도 길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면 거기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때에는 교회가 정의를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지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의의 시행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2:27-27). 철막대기같이 엄한 정의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대환난을 이겨내서 왕국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이상 탐욕과 죄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철장의 지배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천 년은 환상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

계시록 20:7-10

이 천 년이 끝날 즈음에, 사단이 무저갱으로부터 풀려날 것이다. 다시 한 번 사단은 세상을 미혹할 것이다.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20:7-8)

놀라운 사실은 그 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한다는 것이다.

최후의 반역이 일어난다. 땅이 회복된 왕국 시대의 이상적인 조건하에 살면 사람들은 매우 크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질병이나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천 살까지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 년 왕국이 끝날

즈음이 되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을 것이다. 그 천 년 동안은 그리스도만 섬겨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선택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천 년이 다 되어 사단이 풀려나면 사람들은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할 것이다. 터무니없는 생각 같이 보이지만, 사단이 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혹하여 군대를 모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환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들러올라가서 영광된 육체로 주님과 함께 되돌아오는 사람들은 이 때 사단과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 사단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20:6). 그 때에는 사단의 반역에 의해서 충동되지도 않을 것이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사단의 이 마지막 반역은 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시험 기간이 될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에 대항하는 반역적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아담은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지낸 지 겨우 며칠 되지 않아 죄를 지었는데, 만일 그에게 좀더 기회가 있었다면, 그래도 죄를 지었겠는가? 그것은 모두 환경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다.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다.

여기에 왕국 시대의 온갖 혜택과 축복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이라는 완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사단이 풀려나면, 사단의 군대에 합류하여 거룩한 땅을 침범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시온 산에서 군림하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이다. 그러나 침범한 이 군대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정복당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킬 것이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20:9-10)

‘세세토록’이라는 구절은 영원성을 표현할 만큼 강한 의미를 지닌 헬라어이다.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특수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은 사실이다. 지옥(Hades, 음부)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고 거스른 사람들을 영원토록 벌하시는 장소가 있다. 그 곳은 불못, 곧 게헨나(Gehenna)이다.

계시록 20:11-13

이제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때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니엘도 말했다.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단 12:2). 사실상 이 두 부활은 적어도 천 년은 떨어져 있다.

첫번째 부활은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스리기 위해서 깨어나는 정의로운 죽은 자들의 부활일 것이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할 것이다(계 20:5). 이제 계시록 20 장에서 우리는 둘째 부활을 살펴볼 것이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이 시점까지 살다가 죽은 모든 불의한 자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20:11-13)

13 절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죽음과 지옥이 내어준 자들에게서 분리되어 다른 범주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아담 이전에 어떤 지적인 존재가 지구상에 살았고 바다 가운데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론을 뒷받침해 준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헬라어로는 Hades 라고 불리는)라고 하는 일종의 대기소에 있게 된다. 이곳은 지구의 중심부에 있으며, 거기에는 불의한 죽은 자들이 있다.

수장되었든지, 화장되어 그 재가 비행기에서 뿌려졌든지 관계없이, 그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 ‘수장’되었기 때문에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묻혔든지 죄인이라면 그의 영혼은 지옥에 간다. 그런데 계시록 20:13에는 바다가 내어준 죽은 자들과는 별개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했다.

우리는 아담 이전에 있었던 피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그에 관한 아무 기록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만일 그들이 존재했었다면 파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창세기 1:1 은 최초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다. 1:2 은 이렇게 읊길 수 있다.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물에 잠기게 하시는 대격변으로 아담 이전의 인류를 완전히 파멸하셨을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아틀란티스 대륙과 태평양에 있었다고 하는 “뮤”(Mu) 대륙에 대한 소문과 전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 6,000년 전에 아담을 세상에 살게 하셨다. 그러나 지구의 나이는 그보다 최소한 수천 년은 더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살지 않게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 않다. 또한 하나님께서 형체도 없이 비어 있는 어떤 것을 창조하셨을 것 같지도 않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 각각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은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셨다고 했다.(사 45:18)

마찬가지로, 지구가 하나님이 이성적인 피조물을 두신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성경은 다른 행성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넓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셔서 지구라는 한 작은 곳만을 택하여 사람을 살게 하셨겠는가? 이 우주 안에 우리들만 살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별들을 우주에 뿌려 놓으셨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주의 다른 곳에도 사람을 살게 하셨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온 우주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다. 인간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시며, 당신을 매우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구원을 예비하신 것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잘것없든지, 위대하든지,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했다.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그러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 다소 놀라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행한 모든 행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록 역시 완전할 것이다.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다.(20:12)

한번은 유대인들이 예수께 다음과 같이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 6:28-29)고 대답하셨다. 이렇게 물었던 자들 역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성령)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요 16:8-9)

누구든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고 하셨다.(마 12:31)

성령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라고 일러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성령의 그 증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을 회방하고 무례히 행하는 것이 된다. 또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유일한 경로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노하심의 맹렬한 분노를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히 10:27, 29)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죄의 결과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

만일 당신이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알고 있으면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등을 돌렸다.

전체적인 장면을 생각해 보는 데는 그리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다. 군중 속에 당신이 서 있다. 기록을 맡은 천사가 책을 읽어 나가다가 마침내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 당신이 그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의 모든 행위가 날날이 공개된다. 당신은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떨면서 나아간다.

당신이 말한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래 천천히 해라. 너는 영원이란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주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위선자였죠. 그래서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두 이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

“나는 어떤 사람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다.”

당신이 또 응수한다.

“그러면 더 설명 드리죠. 세상에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모든 교회가 다 자기들이 올바른 교회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죠. 어느 교회에 가서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게 어떤 교회에 가서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네게 내 아들을 믿고, 그를 네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말했을 뿐이다.”

당신은 모든 변명을 하고, 마침내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게 된다. 책들은 펼쳐져 있고, 당신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히 10:31)

최후의 판결이 있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어렵게 여겨진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참으로 곤란하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당신은 그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 왔다. 당신이 원하는 그 곳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야 했다. 그분은 당신을 가로막고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주었다. 나는 너 대신 죽기까지 했다. 너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피를 흘렸다.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당신은 그분을 짓밟아 온 것이다.

둘째, 당신은 깨끗케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주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성경은 “피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히 9:22)고 했다. 피흘림은 생명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 여기에서 피흘림은 생명을 바침으로써 죄의 형벌이 보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레 17:11).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죄를 지으면, 정녕 죽으리라”(창 2:17). 처음부터 죄의 값은 사망이었으며, 그것은 결코 감해진 적이 없다. 오늘날에도 역시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 6:23)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리셨다. 그런데 당신이 그분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된다.

셋째, 당신은 성령의 은혜를 멸시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너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 보라, 너는 죄인이다. 네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의 삶을 그분께 맡기어라.” 그러나 당신은 성령의 은혜를 무시한다.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 방식대로 할거예요. 나 스스로의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한다면, 단정하건대 언젠가 당신은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 당신이 나를 쳐다본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이 믿지 않았으니 유감이군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저주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겔 33:11).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이 예비하신 것을 거절하면 그 결과는 고통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마지막 심판날이 올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약점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를 정말로 벌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실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본문의 장면은 누군가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계시록 20:14-15

사망과 음부도 불못 [게헨나] 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20:14-15)

하나님 앞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의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책이 한 권 있다. 그것은 **생명책**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속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씻어 주시길 구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라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대해서 읽을 때 아무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나의 죄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내가 서야 할 유일한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고후 5:10),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올림픽 경기에서의 심판대와 같다. 나는 한 경기에 출전하여 승리했다. 그래서 심판대로 가면, 심판이 나의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준다. 바울은 말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 9:24)

누구든지 둘 중 하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다. 어떤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다. 당신의 선택으로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의 심판대에 서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서는 사람은 “패하였다”고 하는 한 마디만을 듣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철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던 한 농부에 관한 글을 읽었다. 저녁이 되어 그는 랜턴을 켰다. 걸어가다 보니 철로가 갈라지고 부서진 곳이 나왔다. 그는 시계를 보고,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시카고행 기차가 몇 분 후에 이곳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기차가 철로의 망가진 부분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는 기차가 오고 있는 방향으로 뛰어내러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렸다.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달렸다. 마침내 그는 다가오는 기차의 불빛을 보았고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철로 중앙으로 달려 내려갔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펄쩍 뛰면서 기차의 운전석

쪽으로 랜턴을 들어 운전 기사의 얼굴에 비추었다. 운전 기사는 즉시 비상 브레이크를 잡아당겼고, 바퀴는 불꽃을 내뿜었다. 기차는 부쉘린 철로 바로 앞에서 멈추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향한 철로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신의 얼굴에 비추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옥을 향한 그 미친 듯한 돌진을 멈추기를 원하신다. 당신은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랜턴을 비추는 그 사람이 미치광이라고 욕하면서 파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분노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새 주소

계시록 21:1

우리는 이제 시간의 영역을 지나 영원으로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천 년 통치가 시간을 나타내는 마지막 표시였다.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영원이 시작된다. 모든 것은 이제 영원무궁하다.

요한은 말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21:1)

베드로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며, 땅과 온 우주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벧후 3:10-13)고 했다.

이사야서에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사 65:17)라는 말씀이 있다. 이사야서에 있는 ‘창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bara)’인데, 창세기 1:1 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도 그 단어가 사용되었음이 흥미롭다. ‘바라(bara)’는 히브리어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할 때에도 ‘바라(bara)’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 창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만드는 것(아사, asah)”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완전한 새 창조임을 나타낸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21:1)

현재 지구 표면의 4분의 3은 물과 바다와 대양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왕국의 땅에는 바다가 없을 것이다. 바다와 그 소금이 하는 일은 오염된 물을 모아서 정화시켜 땅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새 땅에서처럼 더러운 오염된 물이 없는 곳이라면 바다도 있을 필요가

없다. 만일 당신이 배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계시록 21:2-7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21:2-4)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왕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은 한번에 쫓겨나고, 모든 우주만물은 하나님께 속한다. 빛과 생명이신 한 분 하나님, 하나의 권세, 하나의 통치, 하나의 지배가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가 되겠는가!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21:5-7)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 “모든 것을 상속하라. 모두 너희들의 것이다! 마음껏 누리라!”고 하실 것이다. 변화된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어찌면 우주를 거닐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스런 우주의 광활함을 마음껏 탐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시록 21:8-10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21:8)

새 예루살렘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볼 수 있도록 펼쳐 놓으셨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손해볼 것이 무엇인가? 위험성이 그렇게 높은데도 당신은 도박을 하겠는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21:9-10)

어느 날인가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에 새 거주지를 정하게 될 것이다. 이 곳은 교회가 거하게 될 성이기도 하다.

계시록 21:11-12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 준 큰 성이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21:11-12)

열둘이라는 숫자는 새 예루살렘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숫자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했던 사람들)와 교회가 거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 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도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11:13, 10)

예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사야 등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 즉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였다. 이 성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했지만 그 성을 바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도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다. 이 곳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고 있다.

이 성에는 열두 개의 문이 있는 큰 성벽이 있다. 그리고 이 열두 개의 문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 또 각 문마다 천사가 서 있다. 천사는 당신이 그 문으로 성에 들어갈 때 이렇게 환영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환영합니다!”

계시록 21:13-21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성의 성곽에는 큰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 [약 1,500 마일] 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21:13-16)

이 성은 3.3 억 입방 마일이 넘는다. 어떤 성이(약 140 억 킬로미터) 이렇게 크겠는가!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달의 크기와 비슷하다. 물론 달은 원형이고, 새 예루살렘은 입방체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입방체로 된 천체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천체를 왜 원형으로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은 입방체로 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달처럼, 어찌면 그보다 더 가까이 지구 둘레를 돌지 모른다.

우리가 이 성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아마 마천루(거대한 큰 빌딩)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 사람이 1 입방 마일(1.6 킬로미터)에서 산다면 하늘 나라에는 인구 33 억 이상이 살 수 있다. 인구 밀도를 좀더 높인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 수도 있다.

언젠가 어떤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 “천국에 충분한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별을 가지라! 모든 사람이 자기 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별이 있다. 수십억 개의 은하수가 있는데, 각

은하수에는 또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2). 이는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지으시는 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러 가신 성이다. 당신이 그 성에 가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너를 만나 기쁘구나! 너를 위해 예비된 장소를 보여 주마!”

이 성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는 일은 아주 흥분되는 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아름다운 곳이다. 인간이 아직 오염시키지 않은 하와이의 어떤 곳은 정말로 멋지다. 캘리포니아에도 큰 감동을 주는 멋진 장소들이 있다. 하나님이 6 일 만에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6 일 만에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약 2,000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곳은 어떻겠는가!

하늘 나라의 설계도이다. 요한이 그 성곽을 측량해 보았다.

일백사십사 규빗이니 [약 200 피트 높이=약 66 미터]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21:17)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정도의 길이이다. 그리고 한 뺨은 엄지 손가락에서 새끼 손가락까지를 최대로 벌린 폭이다. 구약 시대에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을 측량했다.

그 성곽은 벽옥 [다이아몬드 같이 투명한 보석] 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21:18)

“맑은 유리 같다”는 말은 금이 너무나 순수해서 투명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금을 정제해도 그렇게까지 순수한 정금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21:19-20)

이 보석들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흉패에 달았던 것이다. 벽옥으로 쌓인 성곽과 그 성곽의 기초석인 이 아름답고 귀중한 보석들을 상상해 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21:21)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은 네 돈이 필요하시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성을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당신의 화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 당신의 돈이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특권이다.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실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에게 주면, 믿지 못할 정도로 네게 부어 주리라!”

계시록 21:22-27

성전이 어디 있나 둘러보고 요한이 말한다.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21:22)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21:23)

모든 아름다운 보석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비출 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해 보라. 온 성은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금빛 거리로 빛날 것이다. 그 밝음과 화려함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조명 시스템이 있다.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이 진주빛으로 환히 비추어진다. 지구에서 이 거룩한 성을 올려다 본다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새 예루살렘은 땅에도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인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21:24-25)

고대 도시에는 문이 있는 성곽이 많이 있었다. 성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었으므로 밤에는 성문을 닫았다.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 성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또 밤이 없으므로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성문은 항상 열려 있다.

사람들이 [땅의 왕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21:26-27)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할 권리가 있다. 얼마나 복된가!

강 같은 평화

계시록 22:1-2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22:1-2)

요한은 새로운 성에 있는 생명수 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강과도 같지 않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 년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며, 이로 인해 그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양쪽으로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큰 계곡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새 성전에서 강이 솟아날 것이다. 이 강은 나뉘어질 것인데, 절반은 사해로 흐를 것이며, 절반은 지중해로 흐를 것이다(슥 14:4, 8). 이 강물이 사해로 흐르면 사해의 물은 소성함을 얻을 것이며, 또 그 속에 고기가 심히 많게 된다고 했다.(겔 47:1-12)

예루살렘 성전에서 솟아나는 그 강물이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흐르는 생명수 강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강은 많은 유사성이 있다. 강가에는 달마다 몇 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다. 에스겔서의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 강가의 나무들도 이와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과 비슷하게 계획하셨다. 특별히 예루살렘 주위는 더욱 그렇다. 생명수 강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적, 상징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강이 아닌 것을 강이라 부르시고, 나무가 아닌 것을 나무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의미하는 그대로를 말씀하시지 않으셨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영적으로 그럴듯하게 해석하여 성경 본문의 뜻을 완전히 왜곡한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본다.

계시록 22:3-6

다시 저주가 없으며(22:3)

지금은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창 3:17-18). 인간도 역시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고 하셨다. 그러니 노동도 일종의 저주이다.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땅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새 땅에서 빈둥빈둥 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산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22:3-4)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과연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 하고 상상해 보곤 한다. 그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울 것이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22:5-6)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안다. 얼토당토 않은 말처럼 여겨진다는 것도 안다.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다. 꼭 동화처럼 들리겠지만, 그러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 것이다.(벧후 1:19)

계시록 22:6-21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22:6-7)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묻는다. 요한은 이 말씀을 거의 2,000년 전에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벧후 3:8)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22:8)

요한은 또 다시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잘못을 저지른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22:9-12)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22:13-19)

이런 경고의 말씀에 계시록을 함부로 고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창세기의 처음 세 장과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은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처음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록은 이 세상의 나중에 대해서 말한다. 대조되는 점들을 도표로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창 세 기	요 한 계 시 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계 21:1)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창 1:10)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창 1: 5)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계 21:25)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창 1: 16)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계 21:23)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	“다시 사망이 없고”(계 21:4)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창 3:16)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계 21:4)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창 3:17)	“다시 저주가 없으며”(계 22:3)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창 3:1) : 사단은 간교한 자(속이는 자)로 나타난다(창 3:1)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계 20:10) : 사단은 영원히 사라진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롭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 3:22-24) : 사람은 생명나무 곁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되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계 22:2) : 누구나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창 3:24)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계 22:4)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창 2:10) : 인간이 처음 살았던 곳은 강가였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계 22:1) : 인간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무슨 책이든 마지막 장은 흥미로운 법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주기 때문이다. 모든 비밀과 경위와 의문점들이 함께 제기된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 계획하신 영원한 나라를 드러내실 때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그 날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22:20-21)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시자 모든 것을 깨달은 요한은 자연스럽게 대답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 영원한 나라를 진행시키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지은이 척 스미스

옮긴이 김동백

펴낸이 김경환

펴낸곳 (주)포도원

2003년 12월 20일 초판인쇄

2004년 1월 2일 초판발행

서울시 구로구 개봉 2동 335-1

전화 2616-8831 FAX 2616-8832

등록번호 제 1-661 호

값 7,000 원

보급처 (주)기독교출판유통

Tel. (031) 906-9191 ~ 4

Fax. 080-456-2580

ISBN 89-87395-33-2